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주 덕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20~30대 남성들의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4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화장품학과 화장품학전공
장 수 진

20~30대 남성들의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주 덕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화장품학과 화장품학전공


장 수 진


인 준 서

장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4년 6월

심사위원장 한 지수 (인) 

심사위원 백혜연 (인) 

심사위원 김주혁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개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점점 자기 몰두화 되어가는 현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에 성향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성향은 다양한 행동 동기로 작용하며 그 가운데 외모관리행동과 소비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므로 최근 부상하는 남성 뷰티 시장과 자기에 성향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뷰티 시장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른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를 통해 20~30대 남성의 자기에 성향에 따른 뷰티 시장의 세분화된 마케팅과 제품 개발, 그리고 기초 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20~30대 남성 535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한 외모관리행동 실태를 조사하였고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의 두 영역으로 분류된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방법으로는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분석(Cronbach's α), 독립 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기술 통계 분석,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외모관리비용은 의복이 35.7%로 가장 높았다. 성형 및 시술 경험 여부는 있음이 36.8%로 조사되었고 성형 및 시술 부위로는 피부 레이저가

가장 많았다.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은 로션이 22.6%로 가장 많았고,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로는 피부 보습이 52.3%로 가장 많았다. 메이크업 사용 여부 경험은 경험 있음이 48.0%였고 사용 중이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BB크림, CC크림이 29.2%로 가장 많았다.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3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 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혼일수록, 회사원/전문직일수록,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르시시즘은 미혼일수록, 학생일수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나르시시즘이 더 높았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각 유형과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전문직 그룹에서 피부와 체형, 헤어와 의복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성형은 학생 그룹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월 평균 외모관리행동 비용이 20만 원 이상인 그룹에서 요인 별 외모관리행동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관리행동이 직업과 연관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일 수 있는 결과로 직업이 있는 그룹에서는 외모를 관리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비슷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학생 그룹에서 성형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미래의 구직 활동에 있어 좋은 이미지를 갖추기 위한 심리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넷째,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에서는 헤어 관리 행동과 피부 관리행동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에서는 외모관리행동의 모든 하위 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안정을 추구하는 자아존중감 특성에 따라 자신의 타고난 신체를 더욱 가꾸는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반면 과시를 추구하는 나르시시즘 성향을 지닌 대상은 타고난 신

체 가꾸기에 더해 의복과 성형 등을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은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는 헤어관리 행동은 자아존중감이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으나 헤어관리행동을 제외한 피부 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 성형관리행동, 의복관리행동에서 나르시시즘이 자아존중감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체적이며 자기만족이 우선시 되는 자아존중감의 내적 동기 보다 타인 의식적이며 과시적인 성향의 나르시시즘이 더 강력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를 통해 현대인들의 주요 특성인 자기에 성향이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 된 피부, 헤어, 체형, 의복, 성형관리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자기에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특성을 반영한 자기에 성향의 다양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현대인들의 자기에 수준이 정확한 수치에 근거하여 데이터화 된다면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외모관리행동과 행동 동기, 소비 심리와 소비 패턴 등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현대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기 사랑과 보다 건강한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문제적 현상으로 대두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좀 더 건강한 외모관리행동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본 연구가 심화되는 경쟁사회에서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자기애	5
1) 자기애의 개념	5
2) 자기애의 유형	8
2. 외모관리행동	12
1) 외모관리행동의 개념	12
2) 남성 외모관리행동	14
3)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15
3. 2030세대의 특성 및 사회 문화적 배경	27
III. 연구 방법	31
1. 연구 모형	31
2. 연구 대상	32
3. 측정 도구	32
4. 자료 분석	34

IV. 연구 결과 및 해석	35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35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실태	36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애 성향 차이	54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59
5.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77
6. 자기애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79
V. 결론	91
1. 요약 및 결론	91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93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학자 별 자기애의 분류	7
〈표 2〉 나르시시즘과 자아존중감의 비교	11
〈표 3〉 피부 유형별 특징	17
〈표 4〉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증상	20
〈표 5〉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33
〈표 6〉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35
〈표 7〉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	38
〈표 8〉 성형 및 시술 경험 여부	41
〈표 9〉 성형 및 시술 부위	43
〈표 10〉 사용하는 기초화장품	45
〈표 11〉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	46
〈표 12〉 메이크업 제품 사용 경험 여부	49
〈표 13〉 사용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	51
〈표 14〉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	53
〈표 15〉 자아존중감	55
〈표 16〉 나르시시즘	58
〈표 17〉 헤어관리행동	60
〈표 18〉 피부관리행동	62
〈표 19〉 체형관리행동	64
〈표 20〉 성형관리행동	66
〈표 21〉 의복관리행동	68
〈표 22〉 외모관리행동	70

<표 23>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72
<표 24>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74
<표 25> 자기애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76
<표 26>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량	77
<표 2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78
<표 28> 자기애 성향이 헤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80
<표 29> 자기애 성향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82
<표 30> 자기애 성향이 체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84
<표 31> 자기애 성향이 성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86
<표 32> 자기애 성향이 의복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88
<표 33> 자기애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9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31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며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자기에 성향을 띠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기에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자기에 현상은 현대의 사회문화적 흐름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자기에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자기에 성향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예술 등의 분야에 고루 영향을 미치지만 뷰티산업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매력적인 외모가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사회생활과 자신감 정도를 보여주는 요소로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자기에 성향의 원인으로는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개인경향성이 지목되며 개인이 주체가 되는 개인주의 경향이 대한민국의 전반적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 차원의 근원적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찾으려 하며 해결책 또한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자기 계발 차원의 한 예로 남성들의 외모 관리가 점점 더 관심을 받고 있다²⁾.

오픈 서베이 남성 그루밍 리포트(2021)는³⁾ 대한민국 20-49세까지의 남성 7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남자도 뷰티 제품을 이용한 자기관리가 필요

1) 차타순(2002), 자기에 적 성격 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4(1). p.39.

2) 윤민재(2020), 한국 사회의 경쟁과 자기계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pp.1257-1269.

3) <https://www.etoday.co.kr/news/view/2108044> 검색일, 2024.03.06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7%였으며 20대 72%, 30대 63.6%, 40대 58.4%의 비율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긍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 조사⁴⁾에서는 한국의 남성 뷰티시장 규모를 2020년 1조 640억 원에서 2022년 1조 923억 원으로 283억 원 증가하였다고 보고했으며 향후 2025년에는 1조 16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동안 외모 관리행동은 대부분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외모가 더 중요시되어왔던 문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의 외모 관리행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나이, 성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은 이들이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여기에 더해 남성의 성형도 크게 늘어 20대는 취업을 앞두고 호감을 주는 인상으로 개선하거나 선명하고 또렷해 보이는 이미지 변화를 위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은 직업과 결혼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위를 개선시키고 호감형의 인상으로 변화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는 추세라고 하였다⁶⁾.

앞서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을 개인주의와 자기에 성향이라고 하였다. 이는 최근 남성 미용시장의 확장과 맞물려 개인주의와 자기에 성향이 남성의 외모 인식 변화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이에 그동안 선행된 자기에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서은혜,2011⁷⁾: 유재이,2018⁸⁾: 임애득,2020⁹⁾: 김부영,2020¹⁰⁾)를 살펴 본 결과, 연구 대부분이 자기

4) https://www.mezzomedia.co.kr/data/insight_m_file/insight_m_file_1582, 2023 화장품 업종 분석 리포트. 검색일, 2024.03.06

5) 김창숙(2017), 남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신체 만족, 피부외모관심 및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서경 대학교 미용 예술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p.13-16.

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1297886i> 검색일, 2024.03.06

7) 서은혜(2011), 자기에 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8) 유재이(2018),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심도가 피부, 모발 인식과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임애득(2020), 자기에 성향과 색채성향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건신 대학교 대학

애를 나르시시즘만으로 정의하거나 자기에의 정적 개념인 자아존중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혹은 자아존중감을 자기에의 반대적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정은영,2013¹¹⁾: 윤상미,2014¹²⁾: 송지현,2020¹³⁾: 강금미,2018¹⁴⁾: 정호민,2021¹⁵⁾)에서 알 수 있듯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의 연구가 더 활발하였으며 자기에, 나르시시즘 관련 연구 대부분이 자기에 성향이 증가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양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미용 산업에서 부상하는 남성 소비자 가운데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외모를 하나의 표현 도구로 인식하여 긴장과 불안에 대처하려는 그들의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남성 관련 뷰티 시장의 특성과 연계하여 전략적 상품 개발과 내재된 자기에 성향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원 국내박사학위논문.

- 10) 김부영((2020), 여성의 자기에 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11) 정은영(2013), 여자 프로 선수의 외모관리행동이 스포츠자신감과 스포츠몰입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12) 윤상미(2014), 중년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외모관리 인식.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13) 송지현(2020),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14) 강금미((20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매력지각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15) 정호민(2021) 여성의 루키즘이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설정한 자기에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문문을 통한 통계자료와 문헌 자료, 선행 연구 및 기타 간행물 등의 검증된 자료를 통하여 20~30대 성인 남성의 자기에성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동기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남성 20세에서 39세 까지의 연령대를 4개 구간으로 분류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을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으로 분류하고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유형을 피부, 헤어, 체형, 성형, 의복관리행동으로 나누어 각 개념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대한민국 20~30대 남성의 자기에 성향의 평균을 알아보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 차이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다섯째, 연구의 결론과 한계점 및 제언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에

1) 자기에의 개념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하며 자신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를 자기에라 하였다. 그는 이러한 성향에 대해 어린 시절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성장한 이후에도 성숙한 형태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병적인 자기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¹⁶⁾.

즉 인간은 성장을 통해 자기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점점 확대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달상 어떠한 장애나 고착 등의 원인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애정의 대상이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병적인 자기에’라는 것이다. 반대로 심리적 에너지가 타인에게 향하며 ‘나’가 아닌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상적인 자기에의 발달단계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향했던 사랑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애정을 근거로 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는 성숙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자기에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384~322 BC)는 자기에(自己愛, self-love)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줌’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성격 특성에 기반 해 ‘일반적인 자기에’와 ‘진정한 자기에’를 구분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잇는 스토아학과 역시 자기에는 윤리적 사유로 나아

16) 박선경(2010),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한 청소년기 자기에적 성격.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p.30-31.

가는 필수적인 통로라고 하였으며 윤리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의 하나로 자기애를 제시하였다¹⁷⁾.

그러나 현실에서 자기애는 정신분석학적 용어로서 자신의 외모나 능력 등의 어떠한 이유를 들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믿는 ‘자기중심성’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이어오는 도덕적 구분이 지양된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자기애’를 동물의 기본적인 감각이면서도 절대적이고 자연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 높게 평가하는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감정을 ‘자기 편애’라 하여 자기애와 구분하였다.

따라서 자기애란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기를 보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정념이자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것이라 하였다¹⁸⁾.

자기애는 “우연한 사고나 또는 그것이 전개되는 상황에 의해” 좋거나 혹은 나쁘게 변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루소 역시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자기애를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강은영(2002)은 기존의 자기애적 성격 연구 대부분이 자기애의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동안의 연구들이 자기애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간과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¹⁹⁾.

앞에서 여러 학자의 주장을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애는 자신에 대한 사랑

17) 김동민(202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애 개념에 관한 고찰. 고향논집, pp.33-52.

18) 안두환(2021), 장-자크 루소의 자기편애의 추론적 역사학: 혁명과 전쟁. 정치사상연구 27(2), pp.9-43.

19) 강은영(2002), 자기 주도적 자기애 및 타인 의존적 자기애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과 존중을 뜻하는 자아존중감을 내포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예로, Campbell, Rudich 그리고 Sedikides(2002)가 출간한 논문에서 자기애는 나르시시즘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자아존중감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엄격히 말해 나르시시즘과 자아존중감은 자기애라는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자기애에 관한 많은 연구 가운데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으로만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반하여 Campbell, Rudich 그리고 Sedikides²¹⁾에 의해 정의된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내포한 용어로서의 자기애를 사용하기로 한다.

< 표 1 > 학자 별 자기애의 유형

학자명/구분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아리스토텔레스	진정한 자기애	일반적 자기애
루소	자기애 ‘amour de soi’	자기편애 ‘amour propre’
프로이트	대상 리비도	자아 리비도
Campbell & Rudich	자아존중감	나르시시즘
Pulver	비방어적 자존감	방어적 자존감
강은영	자기 주도적 자기애	타인 의존적 자기애

20) 이선경, 박선웅,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2014), 한국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 메타 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pp.609-625.

21)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pp.358-368.

2) 자기에 유형

(1) 나르시시즘

라이크로프트(Charles Rycroft, 1914~1998)는 나르시시즘을 ‘변형된 자기중심주의’ 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진 나르키소스라는 인물로부터 전래되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 네케가 1899년에 처음 만들었으며 그 후 프로이드에 의해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²²⁾.

프로이드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을 심리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향하여 리비도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것으로써 리비도가 스스로에게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신병의 기저로 볼 때 외부 세계로 투사된 리비도(Libido)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만을 바라보는 폐쇄적인 증상을 말한다고 하였다. 대상으로 향했다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 온 리비도는 자아 내부에 재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르시시즘은 환상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이유로 나르시시즘을 일종의 히스테리 적 신경증으로 분류하면서 프로이드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다음 5가지의 특징적 행동을 제시하였다²³⁾.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과장된 애착과 존경, 자아 성향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자존감 상실 등의 과도한 두려움

세 번째, 과대망상과 부인 그리고 투사와 분리 등 방어적인 행동,

네 번째, 칭찬과 사랑에 대한 집착과 욕구 또는 완벽함에 대한 과도한 추구.

다섯 번째, 자기 과시적이며 특권의식 등의 성향으로 이러한 특징적 행동들은 스스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믿음에서 오는

22) 맹동례(2016), 나르시시즘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성찰. 영상기술연구, (24), pp.41-64.

23) 황재원(2021), 나르시시즘을 반영한 이상적 자아 이미지 연구: 연구자의 도자조형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9.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80년 정신장애진단편람 제3판에 자기에 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포함하였으며 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²⁴. 자기에적 성격장애의 특징으로 칭찬과 관심에 대한 과도하고 지속적인 욕구와 특권의식 그리고 착취성향과 거만함, 우울감, 시기심, 자기중심적 사고와 허영심, 내면적인 공허감과 과민성 등이며 이것은 병리적인 자기 과시와 양가적 자존감이다.

국내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1999년에서 2014년까지 대한민국 대학생(13,450명)들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15년간 나르시시즘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냈다²⁵.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 나르시시즘의 증가에 대해 거시적 차원에서는 사회를, 미시적 차원에서는 가정의 양육태도를 통해 그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건강한 성격 발달과 개인의 적응력, 자아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요소이다. 자아라는 개념에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의사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로 그는 자아의 개념에 대해 한 인간이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곧 신체 또는 신체 특성, 능력이나 물질적 소유, 가족이나 친구, 직업, 지위 등 한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⁶.

24) 서경현, 양승애(2010), 여대생의 자기에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심리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학회지 18(4), pp.371-378.

25) 이선경, 박선웅,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2014), 한국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 메타 분석(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pp.609-625.

26) 형문정(2022),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가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존감으로도 불리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판단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 여길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 성과를 이루어낼 만 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는 주관적 평가이다²⁷⁾.

또한 자아존중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²⁸⁾.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로젠버그(Morris Rosenberg, 1965~)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메타인지가 높아 자신의 단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인내력이 높고 사교성이 좋아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능력이 뛰어나 원만한 대인 관계를 이룬다고 하였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등 자기저부나 자기불만이 강하며 자기비난의 성격이 높다고 하였다²⁹⁾.

높은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게 매우 호의적이며 긍정적인 자기평가인데 반해, 낮은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게 불확실하거나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뜻한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로 정의되며 개개인의 주요 영역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써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는 개념이다³⁰⁾. 선행 연구들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평가는 개인의 성취 및 정신 건강과 공동체 안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해나가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¹⁾. 즉, 자아존중감은 타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또한 타인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므로, 공동체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개인의 내적요소라 말할 수 있다.

27) Coopersmith, S. (1967). Parent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lf-esteem, In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pp.96-117.

28) 김경하(2014), 아버지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29)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11,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30) 남인숙(2008), 따돌림 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유용성. 사회이론(33), pp.144-148.

31) 이주영(2012)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

<표 2> 나르시시즘과 자아존중감의 비교³²⁾

구분	나르시시즘	자아존중감
정의	자신의 신체, 외모 또는 능력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존경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김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함 • 자신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사랑함 • 긍정적인 자기관(self-view) •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기를 원함 •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함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권의식과 착취적 대인관계 • 주체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 • 착하게 행동하거나 사람들과 공동체적 교감(도의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음 • 동료들의 성과를 가로채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도의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친절하고 사려 깊고 성실하게 행동하려 노력 • 적응을 잘하는 도덕적인 성향을 띄며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림

32) 강상욱(2019),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 개념 정립 및 측정 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2.

3. 외모관리행동

1) 외모관리행동의 개념

외모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을 뜻하며³³⁾ 타인으로부터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면서 사회적 평가의 기초가 되는 단서이다. 또한 타인을 지각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도구이며 얼굴의 모습이나 형태, 체격과 의복, 메이크업이나 안경, 액세서리 또는 건강지수, 개인의 체취 등 신체에 관한 모든 특징들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³⁴⁾.

외모는 자신의 의지로 창조가 가능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개인이 지닌 외모향상에 대한 의지는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자하여 피부 관리나 헤어 등의 비교적 손쉬운 관리에서부터 체형 관리나 성형 등의 적극적인 관리까지도 시도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³⁵⁾.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타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외적 특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개인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³⁶⁾.

현대인들은 사회가 정한 미의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여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결점을 보완하면서 내적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한다.

이렇듯 사회적 기준에 의한 심리적 요인뿐 아니라 신체를 꾸미고 드러내는

33)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4. 03. 10

34) 신주동, 최중명(2008),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p.308.

35)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4). "Attitudes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pp.191-202.

36) 강평미(2014), 사회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7.

행동적 요인,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식의 식습관 요인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이면서 총체적인 개념을 외모관리라고 한다³⁷⁾.

외모관리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개인적 욕망이나 신체를 꾸미는 행동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성공과 연결되기도 하며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또는 부를 대변할 만큼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더욱 향상된 외모를 추구하도록 하며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실천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Goffman(Erving Goffman, 1922~ 1982)에 따르면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외모관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관리할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도드라지게 표현하고, 불리한 정보는 철저히 소거하며, 상대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³⁹⁾⁴⁰⁾.

또한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업무 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 등에 긍정적 평가로 이어지므로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사회적 믿음마저 생겨났다. 외모관리행동은 사회생활에 있어 타인에게 나를 알리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로 부각되며 사회적 교류 안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자기만족을 위해 변화해 가는 과정이며 자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37) 김해정(2004), 외모관리: 자기애적 성격 성향과 신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38) 박은정, 정명선(2011),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 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143-146.

39)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Butler, Bodies that Matter.

31)32) 홍하나(2018), 지향 가치관에 따른 여성 소비자의 외모인식과 외모관리행동.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

2) 남성 외모관리행동

우리는 늘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며 이상적인 외모와 실제적인 외모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행동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 등을 투자하며 자아 만족감을 고양시킨다⁴²⁾.

과거에는 외모관리행동이 주로 여성위주로 편향되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이 두드러지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며 점점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남성 소비자를 겨냥한 토털 뷰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남성이 여성 소비자를 능가하는 소비 주체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다. 남성의 외모 관리 방법도 액세서리, 의복에 한정되었던 소극적인 관리에서 메이크업, 성형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까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급속히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⁴³⁾.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외모관리 목적은 사회적 지위를 정립하고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함이며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데 있다⁴⁴⁾.

최근에는 남성들의 외모 관리행동이 점차 일상처럼 되어 남성들의 외모 관심도뿐 아니라 외모 관리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남성들 역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 하며 사회 생활 속에서 자신을 어필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발하게 활용된다.

42) Kaiser, S. B. (1997). The socialpsychology of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43),35) S. B. Kaiser,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33) 신연옥(2006),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44) 백인선, 홍병숙(2007),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비교가 외모 정보 활용, 외모관리 및 패션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36-38.

이러한 남성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고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외모관리행동이 외모집착으로까지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신드롬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남성들이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을 '아도니스 콤플렉스(Adoniscomplex)'라고 하는데, 여성의 섭식장애와 같이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⁴⁵⁾.

3)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최근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동향을 살펴보면 의복이나 헤어관리와 같은 위생 또는 예절 등의 차원으로 이어져 오던 일반적인 관리행동에서 벗어나 비교적 여성 중심으로 인식되는 성형이나 메이크업 등의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까지 점차 확장 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나 다양한 방송 채널의 발달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의 일상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으며 그들의 개성 넘치는 외모관리행동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현대 남성들의 외모 관심도는 높아졌으며 남성 외모관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들이 점점 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에 과감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최근 명품 브랜드에서는 남성들을 위한 핸드백이나 숄더백 등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20~30대 남성 외모관리행동에 주목하였으며 피부 보정이나 자외선 차단을 위한 피부 톤 업 크림 등을 넘어 다양한 기능의 색조 화장품까지 발 빠르게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연구자는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본

45) 신현욱(2006), 남성 외모관리 행동의 영향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7.

구의 목적에 맞게 외모관리행동을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분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윤소영(2007)은 여대생의 외모관리 인식 및 태도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을 피부 관리와 화장행동, 체형 관리, 의복관리행동, 화장품 구매행동, 소품착용행동, 성형행동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주영(2012)은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외모관리행동을 피부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 메이크업행동, 의복관리행동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정순용(2015)은 여성신체장애인의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 외모관리행동 유형을 피부 와 헤어, 메이크업, 체중과 의복 등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을 유형별로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의복 관리, 성형관리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20~30대 남성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외모관리행동 실태를 살펴본다.

(1) 피부관리행동

① 피부의 개념

피부는 척추동물의 신체를 덮고 있는 중요한 조직으로써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과 분비 및 배설, 피부로의 호흡, 비타민D생성 등의 기능을 한다⁴⁶⁾.

일반적으로 피부는 표피와 진피 그리고 피하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70%의 수분과 25-27%의 단백질 그리고 약 2%의 지질과 약 1%의 탄수화물, 이밖에도 기타 비타민, 호르몬, 효소 미네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⁷⁾. 남성의 피부는 표면층이 두꺼워 주름이 깊게 잡히는 특징이 있으며 피지 분비가 많고

46)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 2024 03. 10

47) 안정화(2011), 남성의 피부 관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수분이 적어 각질이 쉽게 쌓이므로 피부가 탁하고 거친 경향이 있다⁴⁸⁾. 또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피부가 두꺼운 편이며 성장기나 사춘기에 들어 남성들의 여드름이 심한 이유는 안드로젠 호르몬 때문이다. 남성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콜라겐 함량이 많으며 남성들의 피지 분비량이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이 작용 때문이다. 피부는 개인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며,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 량이나 수분의 함유량에 따라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유형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김나희(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만든 피부 유형별 분류표이다⁴⁹⁾.

<표 3> 피부 유형별 분류

구분	주요 특징
건성	피부에 유·수분 양이 적어 건조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피부가 얇고 투명하며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중성	매끄럽고 촉촉하며 섬세한 질감을 갖춘 이상적인 피부. 원활한 피지 분비, 혈액순환으로 피부색이 옅은 분홍색을 띤다
지성	피지선의 활발한 활동, 두꺼운 각질층 피부 표면이 번들거리며 넓은 모공
복합성	피지 분비 불균형으로 2가지 이상의 피부 유형이 나타나는 피부 민감한 피부 유형으로 U 존과 T 존의 다른 피부 상태 부분적으로 번들거리거나 건조

48) 이은채(2022), 20~30대 남성들의 피부유형에 따른 피부 건강 실천행위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49) 김나희(2012), 20대 남성의 피부 상태에 대한 자가 인식수준이 피부 관리 행위 실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9.

② 피부관리행동 및 남성 피부의 연령 별 특징

피부 관리는 성형이나 주름제거 등과 달리 피부의 특성과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는데⁵⁰⁾ 이는 피부의 본래 기능인 생리적 기능, 보호 기능, 면역 기능, 분비 기능, 조절 기능, 흡수 기능, 영양소 저장 기능 등을 유지하여 피부 트러블을 방지하고,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여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외선 및 기후, 대기 오염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생리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 건강과 탄력을 유지하는 목적도 포함된다⁵¹⁾.

사람들은 피부질환과 노화예방의 목적으로 피부관리행동을 하는데 이는 피부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피부 본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상태로 지속하기 위한 행동이다⁵²⁾.

이은채(2022)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거친 피부가 가장 큰 고민이며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의 피부 유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올바른 피부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에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피부 상태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⁵³⁾.

남성의 피부 특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8~24세는 활발한 기능에 비해 호르몬이 불균형하여 신진대사가 안정적이지 못하며 피지량이 높아 여드름이나 뽀주리 등의 피부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피부에 유분이 많아 끈적임과 번들거림이 심한 특징을 보인다.

50) 엄수정(2014), 피부 관리와 안면 미용 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51) 성미애(2005)직장 남성들의 피부 관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22.

52) 이지영, 박길순. 피부관리의 내적·외적 통제요인, 행동의도와 피부관리행동과의 관계분석.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2(4), pp.509-516.

53) 이은채(2022), 20~30대 남성들의 피부 유형에 따른 피부 건강 실천행위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5~35세는 피부의 바이오투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보이지만 흡연이나 스트레스 또는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수면 부족 등으로 피부가 점점 민감해질 수 있다. 또한 피부 상태가 점차 노화되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휴식과 피부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한 연령이다.

35세 이후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유·수분의 양이 감소하고, 피부 자체의 회복력 또한 저하된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유·수분 공급과 세안 후 반드시 피부 유형에 맞는 기초 화장품으로 유·수분유지와 탄력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⁵⁴⁾.

다음은 성미애(2005)⁵⁵⁾, 김민채(2018)⁵⁶⁾, 김희경(2010)⁵⁷⁾, 장명자(2014)⁵⁸⁾ 등의 연구를 참고한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증상에 관한 표이다.

남성의 피부는 수면과 세안, 그리고 음주와 스트레스, 자외선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기미와 주름, 여드름과 노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안정화(2011), 남성의 피부 관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7.

55) 성미애(2005, 재인용)

56) 김민채(2018), 남성의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 태도가 안면 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10.

57) 김희경(2010), 남성 피부 건강관리와 관리실에 관한 의식도 분석. 건국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7.

58) 장명자(2014), 20~30대 남성의 피부 관심도 및 피부 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9.

<표 4>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증상

구분	주요 증상
수면	생체리듬 불균형 아드레날린 분비로 멜라닌 활동증가하며 기미 발생
세안	알칼리성 세정제는 각질을 과도하게 탈락시켜 피부 건조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주름이 발생
음주	비타민 A, B, E 활성 저하 피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붉은 피부유발 피부의 각화 현상 글루타티온의 합성을 감소시켜 기미와 잔주름을 유발 피부에 상열감을 높여, 여드름성 피부 악화 가능성
흡연	프리라디칼(Free-radical)의 생성 촉진으로 피부 탄력 저하,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는 베타카로틴의 생성을 줄여 세포 파괴, 조기 노화가능성
스트레스	피부 투과장벽 기능 손상 면역세포 활동저하 알레르기 발생, 세균 침투, 온도 변화로 인한 피부 가려움, 탄력저하
식습관	비타민 결핍은 피부의 색소침착과 건성 화 지방은 피지선 기능을 조절해 부족 시 건조 유발 아미노산 결핍은 진피세포에 노화가 촉진되어 잔주름, 탄력저하
자외선	피부의 색소침착, 주름, 건조, 홍반, 피부암, 광노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바른 세안과 면도 그리고 개인 피부 유형과 연령에 맞는 화장품 선택,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마사지와 마스크 팩, 피부과 시술 등이 피부 관리행동에 속하며 이러한 행동이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체형관리행동

체형이란 인체의 가장 바깥쪽의 윤곽을 말하며 전체 체형과 부분 체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체형의 가장 기본은 골격이며 뼈에 근육이 붙어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바깥쪽을 피하지방이 싸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피부가 덮고 있는 형태이다. 체형은 연령과 성별 또는 인종이나 지역, 직업 등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이로는 성인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신장이 5~10cm 크고, 골격이 더 크며, 근육이 강하게 발달하였다⁵⁹⁾.

현대사회는 육체가 자본이 되는 사회로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 또한 외모평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어 최근 남성들의 몸만들기 열풍이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⁶⁰⁾.

과거와는 달리 현대 남성은 ‘라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남성다운 라인이 곧 남성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거주 대학생 780명(남학생 389명과 여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전반적인 외모불만은 여학생들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남학생의 약 18%, 여학생의 약 25%), 체중에 대한 불만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다(남학생 약 29%, 여학생 약 19%). 남성들의 경우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중에 훨씬 미치지 못해 고민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최근 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접하는 이상적인 남성의 몸은 군살 없이 적정하게 발달한 근육질인데, 이런 몸은 마른 체형보다 체중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근육질 체형을 원하는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체가 왜소하다고 느끼기 쉽다. 과거에는 건강 때문에 운동이나 체중관리를 했다면 최근에는 외

59) 이경숙(2004), 대학생의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9.

60) 안미나(2016), 20-40대 남성의 외모관리 기대가치에 따른 의복추구혜택과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61)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 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39(6), pp.96-99.

모 개선을 위해 체중조절이나 운동을 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고 있다⁶²⁾.

미국의 경제학자 대니얼 해머메시는 몸무게나 키 또는 둘의 조합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경우 키와 몸무게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몸무게는 여성에게, 키는 남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⁶³⁾.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날씬한 몸을 기준으로 신체 매력을 어필하는 한편 남성은 근육과 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⁶⁴⁾.

3) 헤어관리행동

인간의 미적탐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한다. 원시시대부터 모발을 단정히 하는 것은 신체 보호 외에 주술 및 심미적 기능을 지닌 종합적인 표현 수단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의 조상들 역시 두발을 소중히 다루는 것을 효를 다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모발의 모양만으로도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 혼인 상태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의 모발은 사회문화적 시대상을 나타내는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⁶⁵⁾

현대에는 남성의 외모 관리 수요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헤어 시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헤어 관리를 통한 외모 개선은 자신감과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적 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별한 날 뿐 아니라 일상 안에서 점차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헤어관리행동은 개인의 모발 연출을 통해 외모 개선과 스타일에 변화를 줄

62) 이지현(2003),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성역할 정체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20.

63) 미인경제학(2012), 동녘 사이언스, p.75.

64) 신연욱(2006),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65) 류지원(2005), 남성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 특성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 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1(1), pp.41-42.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수단 중의 하나이며⁶⁶⁾ 두발에 커트나 펌, 염색, 코팅 등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하거나 에센스 및 자외선 차단제 등의 헤어기능성 제품을 이용하여 두피관리 및 두피마사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두발이나 두피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두발 형태 변화나 두피관리 등으로 건강과 미를 추구하는 것이다⁶⁷⁾.

헤어는 인간의 신체 중 얼굴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며 이미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스타일의 변화가 용이하고 타인에게 개인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상징적 역할을 한다⁶⁸⁾. 또한 헤어스타일 행동을 통해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시각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모를 통한 상징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시키는 수단이 된다⁶⁹⁾.

4) 의복관리행동

남성 사회에서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의 성취를 나타내는 도구이자, 때론 목표달성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⁷⁰⁾.

홀랜더(Hollander)에 의하면, 14세기 서양에서 남성 귀족들은 가발이나 화장품 또는 장신구들을 이용해 멋을 냈고 17세기까지도 현재 여성들의 의복으로 간주되는 레이스와 실크 등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이 시기의 미용 행위는 성별을 구분하기 위한 것보다는 대부분 남성의 계급적 특권을 상징하였다⁷¹⁾.

66) 류혜리 외(2014), 남성의 헤어 스타일 행동 유형에 따른 미용실 이용실태와 선호 헤어스타일.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2), pp.151-152.

67) 정성아(2024), 남성 헤어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외보관심도와 헤어관리행동의 차이. 광주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68) 오인영(2006),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0.

69) 노선옥((2011), 대인관계 성향, 생활 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5.

70) 신연옥(2006),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요인 연구. 연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9.

71) 임인숙(2005), 남성의 외모관리 허용 수위와 외모불안 지대. 한국사회학, 39(6), p.90.

의복은 경제력과 정서적인 취향에 의해 표현방식에 차이를 보이며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 등이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의복관리행동이란 의복의 구입부터 착용, 의복에 대한 관심, 세탁에서 관리까지의 전반적인 행동을 뜻한다⁷²⁾.

현대의 젊은 남성들은 개성과 자아 표현 또는 인정 욕구를 위해 뷰티 관련 상품들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의복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이 두드러지는데⁷³⁾ 이는 의복이 개인의 이미지나 내면적 특성에 있어 때로는 상징적 언어가 되기도 하며 또한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단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복은 신체 불만족과 심리적 보상, 자아존중감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불만족을 의복행동을 통해 향상 또는 개선시킴으로써 심리적 보상을 얻고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나 성공여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하는 특징을 보인다⁷⁴⁾.

이를 통해 의복 관리행동은 인간의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기도 하며 인간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반대로 삶의 질이나 스트레스 등의 변인이 의복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성형관리행동

상해 등으로 인한 신체의 변형이나 선천적 기형을 외과적인 기술로 교정·또는 복원시키는 수술을 성형이라 하며, ‘Plastic surgery’ 또는 ‘reconstructive surgery’

72) 최수경(2014), 남성 토탈 패션을 위한 의복 이미지, 헤어스타일 이미지, 헤어스타일 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p.635.

73) 안미나(2016), 20-40대 남성의 외모관리 기대가치에 따른 의복추구혜택과 영향 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74) 신연옥(2006),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라고 한다. plastic은 프라스치고스 (plastikos)라는 희랍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형태를 갖추는 뜻이 있고 ‘reconstructive’는 손실된 것을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강진성,1995: 장미,2014). 최초의 미용성형은 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의 얼굴 또는 신체에 입은 부상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시행되었다⁷⁵⁾.

이러한 미용 성형은 20세기로 접어들어 항생제의 개발과 함께 성형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원적인 성형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사람들의 미적 욕망과 성형에 대한 관심이 미용 성형의 빈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⁷⁶⁾.

그러나 미용 성형은 인간이 추구하는 미적 욕구 충족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의 삶의 질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와 범위가 더욱 확장되면서 외형 뿐 만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미용 성형 산업은 인간의 신체 모든 부분 부분을 심미학적, 의학적, 과학적, 사회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종합예술 산업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⁷⁷⁾.

최근 한 남성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 자신의 성형 전후사진을 비교해 올리며 “그 얼굴로는 취업 못한다.”는 면접관의 말에 충격 받아 한국 아이돌의 얼굴처럼 성형했다고 고백해 화제다. 그는 눈, 코, 입 뿐 아니라, 치아까지 포함해 총 9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베트남 돈으로 4억 동 우리 돈으로 2000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성형에 투자하였다.

그는 “매력적이지 않은 얼굴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롱과 모욕을 받는 일은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이 성형의 계기라고 말했다⁷⁸⁾.

75) 유해숙(2013),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이 미용 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76) 허은숙(2011),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특성.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

77) 장미(2014),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4.

78) 동아일보(2021). “그 얼굴론 취업 못해” 말에 ‘K돌’ 얼굴로 성형한 베트남남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8/105777025/2> (검색일: 2024. 04. 09)

과거에는 대부분 선천적 기형이나 흉터 또는 손실된 신체 부위를 복원시키는 등의 이유로 성형을 하였으나 현대에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면접, 구직, 비즈니스, 결혼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생계형 성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런던정책연구센터의 연구위원인 캐서린 하킴은 자신의 저서 ‘매력자본’에서 매력자본이라는 용어의 뜻을 ‘타인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호감을 얻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하였다⁷⁹⁾.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취업이나 이직, 결혼이나 비즈니스 등에 있어 자신의 외모를 가꾸거나 개선시키려는 행동이 경쟁력을 꾀하는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적지 않은 남성들은 구직 활동 시에 좋은 인상 형성을 위한 성형을 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성형 목적은 주로 ‘자신감 회복’인데 반해 남성들의 성형 목적은 ‘외모로 인한 불이익에 대처하기 위해’라고 하였다⁸⁰⁾.

지금까지 남성 외모관리행동에 관해 살펴 본 바,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몸은 과거 유교사상과 가부장의 권위에서 비롯된 건강하고 강인한 육체에서 탈피하여 현대 사회가 규정한 새로운 미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갈고 닦아 나가야 할, 경쟁력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남성들의 외모관리 동기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토대로 그들의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 미용 시장 확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79) 박상훈(2014), 외모지상주의의 역설. 알에이치코리아, pp.88-89.

80) 한국 경제, 2015. 성형 받은 10명 중 8명, 성형 전 외모로 불이익 경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1297886i> (검색일: 2024. 04. 06)

4. 2030세대의 특성 및 사회 문화적 배경

1) 2030세대의 특성

2030남성의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030세대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2030세대 남성들의 특성과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가장 많이 연구되며 주목받는 것은 특정한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한 세대는 그 시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⁸¹⁾. 세대는 사용자에 따라,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지만 통상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하여 부모 세대를 잇는 약 30년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⁸²⁾.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세대는 MZ 세대이며 이들은 1980년 초부터 2000년 초에 출생한 M세대와 1990년 중반에서 2000년 초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 포함하는 세대이다⁸³⁾.

오늘날 이들 세대를 특정 하는 문화 중 하나로 혼밥, 혼술 문화를 꼽을 수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은밀한 자기에 성향과 깊이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혼밥, 혼술에 이어 혼곡(혼자 노래 부르기), 혼행(혼자 여행가기), 혼영(혼자 영화보기) 등 개인주의가 원인이 되는 신문화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한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 혼자만의 생활과 시간을 즐기는 문화가 빠르게

81) 손정희 외(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77, p.205.

82) 정나리 외(2023),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 세대 호칭의 유형. 한국사회 24(1), pp.7-8.

83) 박순형(2020),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63(18), p.1.

번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은밀한 자기에 성향의 주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⁸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은 최근 451개 기업을 대상으로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기업에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알아본 결과 88.2%의 비율이 “Yes”로 답했다고 밝혔다.

비교 결과 MZ세대가 기업에 원하는 것 가운데 이전 세대와의 차이점은 ‘워라벨의 중시 및 보장’이 1위(62.1%)를 차지했고 이어 조직보다는 개인의 이익 우선(59%)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개성 존중(36.4%)과 수평적 업무, 자유로운 문화(24.4%), 기회균등(21.1%), 명확한 업무 지시와 결과에 따른 피드백(19.6%), 개인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지원(12.1%) 등이 있었다.

이에 응답 기업 가운데 56.5%는 MZ세대 인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강한 개인주의(67.8%), 불이익에 민감(37.3%), 개성이 강하며 조직과 융화에 있어서의 어려움(32.9%), 퇴사·이직의 과감성(32.5%), 거침없는 언행(20.8%), 기성세대의 방식에 대한 거부감(15.7%) 등이 조사되었다⁸⁵.

2) 사회 문화적 배경

대한민국 2030세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위협 또는 국내적으로 남북한의 대립과 실업문제 그리고 청년 고용문제 등의 현실 한가운데에 놓여있다⁸⁶.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금융위기와 고

84) 이재현 (2018), 한국 청년들의 개인주의 문화와 목회적 돌봄: 은밀한 자기에적 성향의 청년들에 대한 목회적 대응. 장신논단 50(2), pp.285-303.

85) 경향 일보 (2020), “MZ세대는 워라벨 보장, 개인중시 등 이전세대와 달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008040947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검색일: 2024. 03 06)

용 불안 등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취업을 위한 학업과 스펙 쌓기 등의 부담을 안고 살아간다. 이들 세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심각한 경쟁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9~2019년) OECD 국가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6.1%(2009)에서 5.3%(2019)로 0.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5.0%에서 5.7%로 0.7% 더 악화되었으며 한국의 청년 대학졸업자 실업비율 또한 OECD 37개국 중 14위(2009)에서 28위(2019)로 14계단이나 크게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60.6%(2009)에서 69.8%(2019)로 9.2% 올랐으며 OECD 평균보다 8.6% 크게 증가했고, 2009년 이후 꾸준히 OECD 1위를 차지하였다⁸⁷⁾.

이러한 환경 안에서 개인주의가 강한 2030세대들은 현대 사회가 야기한 근원적 문제를 사회적 차원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타개책으로 자기 계발과 스펙 쌓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하고 꾸려나가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한다는 논리에 따라 움직이며 ‘경쟁’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⁸⁸⁾.

이들은 대부분 특정한 스펙과 자기계발의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청년들이 서로 결속되지 못한 채 파편화되어 부유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따른 무한 경쟁구조 때문이며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 대신, 실패가 가장 덜한 관찮은 일자리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로 우리 사회가 더 관찮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⁸⁹⁾.

86) 윤민재(2020), 한국 사회의 경쟁과 자기계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외 21(2), pp.1257-1269.

87) 한국경제연구소(2020), 한국 고등교육 이수율 OECD 1위...대졸실업률이 10위. 한국경제연구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70900003> (검색일, 2024.03.10.)

88) 윤민재(2020), 한국 사회의 경쟁과 자기계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외 21(2), pp.1257-1269.

지금까지 대한민국 2030세대의 특성과 사회 문화적 환경을 알아봄으로써 혼밥 족을 비롯한 개인주의문화와 고용불안에 따른 경제적 위기, 심화되는 경쟁 구조 속에서 2030세대는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계발과 스펙 쌓기 등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스펙 쌓기와 자기계발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2030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89) 정나리(2023), 한국 청년의 '아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2000년 이후 불안한 청년 의식의 사회적 기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74-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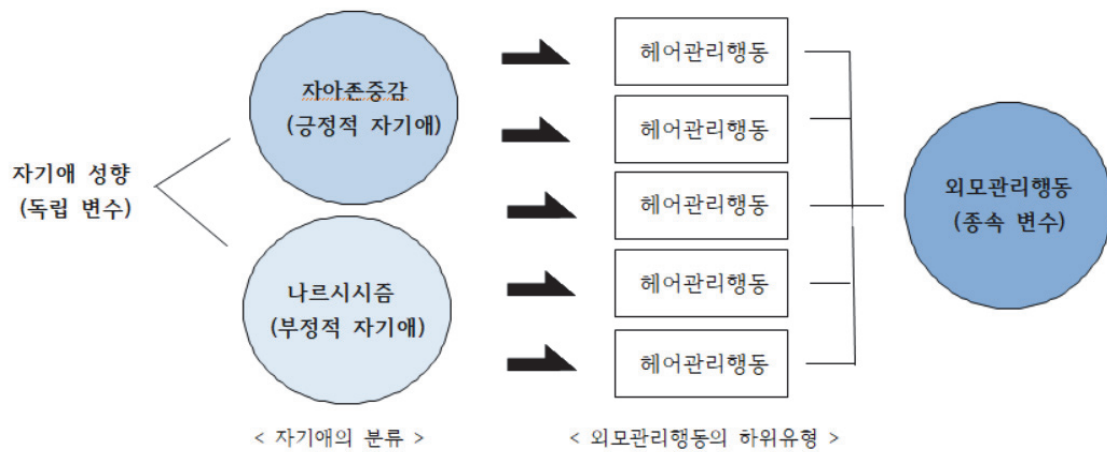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1. 연구 모형

본 장에서는 자기에 성향의 하위 유형을 Campbell, Rudich 그리고 Sedikides (2002)에 의해 정의 된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의 두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윤소영(2007), 이주영(2012), 정순용(2015) 등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외모관리 행동을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의복관리, 성형관리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 행동의 각 유형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기애 성향과 외모관리행동의 하위유형과의 상관관계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3일~ 2024년 1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한 전체 응답자 578명 가운데 중도 포기 응답자, 조사 조건 탈락 응답자, 할당량 초과 응답자, 불량응답자를 제외한 535명을 최종 선정 하여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해 자기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자아존중감, 나르시시즘,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실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크게 5가지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⁹⁰가 개발하고 김성령(2016)⁹¹이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나누어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르시시즘은 임은정(2019)⁹²과 강상욱(2019)⁹³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기 중요성, 자기 과시성, 자기 과민성, 자기 방어성 등을 참고해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해 사용하였으며 외모 관리행동은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바탕으로 한 안채리 (2011)⁹⁴, 신정원(2023)⁹⁵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새롭게 구성

90) Rosenberg,M.(1965), Societyandtheadolescentself-image.Princeton,NJ:PrincetonUniversityPress.

91) 김성령(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2) 임은정(2019),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93) 강상욱(2019),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94) 안채리(2011), 남자대학교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5) 신정원(2023), 20-30대 직장 남성의 체면민감성이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화장품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박사학위논문

하였다.

자기애 성향 설문 전체 Cronbach' s $\alpha = 0.803$ 이며 외모관리행동 설문의 전체 Cronbach' s $\alpha = 0.910$ 으로 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구분	문항 수	Cronbach' s α
자기애 성향	자아존중감	10	.877
	나르시시즘	13	.875
	전체	23	.803
외모관리행동	헤어관리	3	.713
	피부관리	5	.801
	체형관리	2	.663
	성형관리	2	.651
	패션관리	3	.761
	전체	15	.910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자료의 처리는 통계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설문지 측정 도구의 문항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분석(Cronbach's α)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실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응답분석과 χ^2 검증에 의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 성향, 외모관리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자기에 성향, 외모관리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등을 산출하였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와 같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25세 미만	147	27.5
	25-30세 미만	148	27.7
	30-35세 미만	129	24.1
	35-39세	111	20.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13.1
	대학교 졸업(재학생 포함)	424	79.3
	대학원 졸업(재학생 포함)	41	7.7
결혼상태	기혼	114	21.3
	미혼	421	78.7
직업	회사원	287	53.6
	자영업	25	4.7
	전문직	38	7.1
	학생	141	26.4
	기타	44	8.2
월평균 외모관리비용	5만 원 미만	111	20.7
	5-10만 원 미만	175	32.7
	10-20만 원 미만	174	32.5
	20-30만 원 미만	50	9.3
	30만 원 이상	25	4.7
	계	535	100.0

연령별로 20-25세 미만은 147명(27.5%), 25-30세 미만은 148명(27.7%), 30-35세 미만은 129명(24.1%), 35-39세는 111명(20.7%)이고,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은 70명(13.1%), 대학교 졸업(재학생 포함)은 424명(79.3%), 대학원 졸업(재학생 포함)은 41명(7.7%)으로 대학교 졸업(재학생 포함)이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은 114명(21.3%), 미혼은 421명(78.7%)으로 미혼이 기혼보다 많았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은 287명(53.6%), 자영업은 25명(4.7%), 전문직은 38명(7.1%), 학생은 141명(26.4%), 기타는 44명(8.2%)으로 회사원, 학생, 기타 순으로 많았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은 111명(20.7%), 5-10만원 미만은 175명(32.7%), 10-20만원 미만은 174명(32.5%), 20-30만원 미만은 50명(9.3%), 30만 원 이상은 25명(4.7%)으로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약 65% 정도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실태 차이

1)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 가운데 최다 비용 지출 분야는 <표 7>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의복이 3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부(30.5%), 헤어(23.2%) 순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38.1%), 25-30세 미만(35.1%)은 피부가 가장 많았고, 30-35세 미만(34.9%), 35-39세(45.0%)는 의복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결혼상태별로는 기혼(47.4%)은 의복이 가장 많았고, 미혼은 피부(33.3%)와 의복(35.5%)이 비슷하게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38.8%)은 의복이 가장 많았고, 학생(39.7%)은 피부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기타(33.3%)는 헤어가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관리행동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외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편의성을 들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의복은 나이나 신분, 또는 지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나이가 많을수록, 전문직일수록, 기혼일수록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의복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외모 관리행동이 자기이미지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백선아(2021)⁹⁶의 연구에서 의복관리가 각 요인 별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온 결과와 부합한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39.6%), 5-10만원 미만(34.3%)은 의복이 가장 많았고, 10-20만원 미만은 피부와 의복이 각각 36.8%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41.3%)은 피부가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결과적으로 피부관리행동은 연령과 결혼 여부, 그리고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96) 백선아(2021)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자기이미지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 7>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

구분	피부	체형	헤어	의복	성형 및 시술	계	X^2 (df)	p	
연령	20-25세 미만	56 (38.1)	15 (10.2)	29 (19.7)	46 (31.3)	1 (.7)	147 (100.0)	22.513* (12)	.032
	25-30세 미만	52 (35.1)	14 (9.5)	30 (20.3)	50 (33.8)	2 (1.4)	148 (100.0)		
	30-35세 미만	28 (21.7)	18 (14.0)	36 (27.9)	45 (34.9)	2 (1.6)	129 (100.0)		
	35-39세	27 (24.3)	4 (3.6)	29 (26.1)	50 (45.0)	1 (0.9)	11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12 (17.1)	6 (8.6)	21 (30.0)	31 (44.3)	0 (0.0)	70 (100.0)	13.240 (8)	.104
	대학교 졸업	134 (31.6)	44 (10.4)	94 (22.2)	147 (34.7)	5 (1.2)	424 (100.0)		
	대학원 졸업	17 (41.5)	1 (2.4)	9 (22.0)	13 (31.7)	1 (2.4)	41 (100.0)		
결혼상태	기혼	23 (20.2)	8 (7.0)	27 (23.7)	54 (47.4)	2 (1.8)	114 (100.0)	12.055* (4)	.017
	미혼	140 (33.3)	43 (10.2)	97 (23.0)	137 (32.5)	4 (1.0)	421 (100.0)		
직업	회사원/전문직	87 (26.8)	28 (8.6)	79 (24.3)	126 (38.8)	5 (1.5)	325 (100.0)	18.101* (8)	.020
	학생	56 (39.7)	18 (12.8)	22 (15.6)	44 (31.2)	1 (0.7)	141 (100.0)		
	자영업/기타	20 (29.0)	5 (7.2)	23 (33.3)	21 (30.4)	0 (0.0)	69 (100.0)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	25 (22.5)	11 (9.9)	31 (27.9)	44 (39.6)	0 (0.0)	111 (100.0)	45.750*** (12)	.000
	5-10만원 미만	43 (24.6)	20 (11.4)	52 (29.7)	60 (34.3)	0 (0.0)	175 (100.0)		
	10-20만원 미만	64 (36.8)	14 (8.0)	31 (17.8)	64 (36.8)	1 (0.6)	174 (100.0)		
	20만원 이상	31 (41.3)	6 (8.0)	10 (13.3)	23 (30.7)	5 (6.7)	75 (100.0)		
전체	163 (30.5)	51 (9.5)	124 (23.2)	191 (35.7)	6 (1.1)	535 (100.0)			

* $p < .05$, *** $p < .001$

2) 성형 및 시술

(1) 성형 및 시술 경험 여부

성형 및 시술 경험 여부는 <표 8>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있음이 36.8%, 없음이 63.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62.6%), 25-30세 미만(58.8%), 30-35세 미만(68.2%), 35-39세(64.0%) 모두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51.8%), 미혼(66.3%) 모두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경험 있음의 경우에는 기혼(48.2%)이 미혼(33.7%)보다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60.6%), 학생(60.3%), 자영업/기타(81.2%) 모두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경험 있음의 경우에는 회사원/전문직(39.4%)과 학생(39.7%)이 자영업/기타(18.8%)보다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이와 같이 경험 있음의 경우, 직업별로 회사원/전문직과 학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심화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구직 활동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영업이나 기타 그룹보다 직장인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이 상대적으로 면접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갤럽리포트⁹⁷⁾에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외모와 성형 수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가운데 남성이 취업을 위해 성형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4년에 48%에서 2020년 67%로 늘어났다. 이는 구직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성형을 선택하거나 고려해 본적이 있는 남성들에 대한 결과이

97) 갤럽 리포트(2020), 외모와 성형에 대한 인식. 검색일, 2024.03.1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97>

다. 이는 20여 년 전이나 현재에도 남성의 성형은 취업에 있어 우위를 꾀하는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관한 최미혜(2010)⁹⁸⁾의 연구에서 남성의 성형 이유 가운데 취업에 유리한 결과를 위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난 결과와 같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미용성형에 대해 연구한 피자치, 조고미(2022)⁹⁹⁾의 연구에서 미용성형관리는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 준비행동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사회나 시대를 막론하고 남성들은 취업을 위해 성형 관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20년 전이나 현재까지도 성형관리행동은 남성의 취업을 위한 전략적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91.0%), 5-10만원 미만(72.0%)은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고, 10-20만원 미만은 경험 있음(48.3%)과 경험 없음(51.7%)이 비슷했고, 20만원 이상(72.0%)은 경험 있음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결과적으로 남성의 성형관리행동은 경험 없음이 더 많았으나 경험 있음의 경우는 결혼 여부와 직업별, 외모관리비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98) 최미혜(2010),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9) 피자치, 조고미(2022), 취업스트레스의 정서요인과 신체화증상, 미용성형 및 체형관리행동과의 연계성 광주광역시 중국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3.1 (2022): 299-312.

<표 8> 성형 및 시술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X^2 (df)	p
연령	20-25세 미만 (37.4)	92 (62.6)	147 (100.0)	2.688 (3)	.442
	25-30세 미만 (41.2)	87 (58.8)	148 (100.0)		
	30-35세 미만 (31.8)	88 (68.2)	129 (100.0)		
	35-39세 (36.0)	71 (64.0)	11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30.0)	49 (70.0)	70 (100.0)	3.005 (2)	.223
	대학교 졸업 (37.0)	267 (63.0)	424 (100.0)		
	대학원 졸업 (46.3)	22 (53.7)	41 (100.0)		
결혼상태	기혼 (48.2)	59 (51.8)	114 (100.0)	8.126** (1)	.004
	미혼 (33.7)	279 (66.3)	421 (100.0)		
직업	회사원/전문직 (39.4)	197 (60.6)	325 (100.0)	11.015** (2)	.004
	학생 (39.7)	85 (60.3)	141 (100.0)		
	자영업/기타 (18.8)	56 (81.2)	69 (100.0)		
월평균 외모관리비 용	5만원 미만 (9.0)	101 (91.0)	111 (100.0)	92.473*** (3)	.000
	5-10만원 미만 (28.0)	126 (72.0)	175 (100.0)		
	10-20만원 미만 (48.3)	90 (51.7)	174 (100.0)		
	20만원 이상 (72.0)	21 (28.0)	75 (100.0)		
전체	197 (36.8)	338 (63.2)	535 (100.0)		

** $p < .01$, *** $p < .001$

(2) 성형 및 시술 부위

성형 및 시술 부위는 성형 및 시술 경험이 있는 197명을 대상(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피부 레이저가 1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눈썹 및 헤어 문신(16.4%), 보톡스 및 필러(16.0%), 눈(14.4%), 제모(14.4%), 코(10.0%), 얼굴 윤곽(9.3%) 순으로 많았다.

이상과 같이 시술 부위 중에는 피부 레이저가 가장 많았으며 성형에서는 눈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외모관리행동 빈도가 높으며 그 가운데 피부관리행동이 성형관리행동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된다는 김혜균, 박명희(2014)¹⁰⁰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젊은 남성들은 남성다움과 책임감 등을 미덕으로 여기던 과거의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와 달리 여성과의 경쟁이나 역할 분담 등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비해 남성도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추세이며 특히 생활양식의 변화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피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과거 결점을 화장 등으로 가리거나 보완하려는 시도와 달리 현대인들은 피부 결점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피부 레이저 시술이 빈번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로는 조가영(2020)¹⁰¹의 남성들의 피부 미용시술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의 20대에서 50대 남성들은 외모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의향이 매우 높으며 피부 레이저 등의 미용 시술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두 선행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고찰한 결과 비교적 연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 외모관리행동은 성형보다는 간편한 피부 시술 등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00) 김혜균, 박명희(2014),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사회 심리적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14(4), pp.319-327

101) 조가영(2020), 남성들의 피부 미용시술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6.

<표 9> 성형 및 시술 부위

(복수응답)

구분	빈도(N)	백분율(%)
눈	65	14.4
코	45	10.0
얼굴 윤곽	42	9.3
피부 레이저	88	19.5
보톡스 및 필러	72	16.0
제모	65	14.4
눈썹 및 헤어 문신	74	16.4
계	451	100.0

3)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은 535명을 대상(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표 10>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로션이 2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킨(21.7%), 자외선 차단제(12.7%), 수분/영양 크림(11.6%), 에센스(9.8%), 마스크팩(9.5%), 울인원(7.6%), 아이크림(4.5%)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20~30대 남성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은 로션과 스킨 순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본 연구와 비슷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정재명(2020)¹⁰²⁾의 남성의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스킨(27.9%), 로션(27.4%)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남성들은 로션이나 스킨 가운데 한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비교적 사용의 간편함에 따른 선택으로 사료되는데 조현아(2022)¹⁰³⁾의 남성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은 스킨과 로션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울인원 화장품을 사용하는 남성의 73.8%가 ‘사용의 편리함’을 이유로 들어 본 연구자의 고찰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102) 정재명(2020), 20~30대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

103) 조현아, 박초희(2022), 남성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 분석 -울인원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28(4), p.664.

<표 10>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복수응답)

구분	빈도(N)	백분율(%)
스킨	412	21.7
로션	429	22.6
에센스	186	9.8
수분/영양 크림	220	11.6
울인원	145	7.6
아이크림	85	4.5
마스크팩	181	9.5
자외선 차단제	241	12.7
계	1899	100.0

4)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는 <표 11>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피부 보습이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피부 청결(25.4%), 트러블 관리(14.4%), 안티 에이징(7.9%)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20~30대 남성들이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로는 피부 보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수분이 부족하여 각질이 잘 쌓이는 특성으로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민채(2018)¹⁰⁴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 피부는 여성의 피부에 비해 수분 증발량이 높아 건조한 특징이 있으며 수분 함유량이 여성 피부의 1/3로 유수분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 피부장벽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각질, 피부 당김, 피부 건조 등의 현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표 11>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

구분	빈도(N)	백분율(%)
피부 청결	136	25.4
피부 보습	280	52.3
안티 에이징	42	7.9
트러블 관리	77	14.4
계	535	100.0

104) 김민채(2018), 남성의 생활습관과 피부관리 태도가 안면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5.

5) 메이크업 제품 사용

(1) 메이크업 제품 사용 경험 여부

메이크업 제품 사용 경험 여부는 <표 12>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경험 있음이 48.0%, 경험 없음이 52.0%로 경험 있음과 없음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51.0%), 30-35세 미만(56.6%), 35-39세(55.0%)는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고, 25-30세 미만(53.4%)은 경험 있음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53.5%)은 경험 있음이 가장 많았고, 미혼(53.4%)은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은 경험 있음(48.3%)과 경험 없음(51.7%)이 비슷했고, 자영업/기타(73.9%)는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고, 학생(58.2%)은 경험 있음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연구 결과 직업별 메이크업 제품 사용 경험 여부는 학생이 경험 있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나이가 어릴수록 남성 메이크업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회사원/전문직 그룹에서도 48.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경험 없음과 비슷한 결과를 보아 전반적인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그룹이 메이크업제품 사용 경험 여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민준식(2017)¹⁰⁵의 남성 보정용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에서 월 소득 100만 원 이상인 남성 대부분이 BB, CC 크림 등을 사용하여 피부 보정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가운데 중요한 행사 때와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음, 그리고 연령이 적을수록 거의 매일 피부표현 또는 눈썹 등의 메이크업을 수용하는 빈도가 높음, 사무직 남성이 다

105) 민준식(2017), 피부보정용 색조 화장품군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및 실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른 직업의 남성보다 평상시 메이크업 수용 빈도가 높다는 박혜영(2018)¹⁰⁶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84.7%), 5-10만원 미만(59.4%)은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고, 10-20만 원 미만(64.4%), 20만 원 이상(76.0%)은 경험 있음이 가장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이상으로 남성들의 메이크업 사용 경험은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평소 가벼운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이미지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06) 박혜영(2018), 밀레니얼 세대의 남성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1.

<표 12> 메이크업 제품 사용 경험 여부

구분	예	아니오	계	X^2 (df)	p	
연령	20-25세 미만	72 (49.0)	75 (51.0)	147 (100.0)	3.248 (3)	.355
	25-30세 미만	79 (53.4)	69 (46.6)	148 (100.0)		
	30-35세 미만	56 (43.4)	73 (56.6)	129 (100.0)		
	35-39세	50 (45.0)	61 (55.0)	111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27 (38.6)	43 (61.4)	70 (100.0)	3.448 (2)	.178
	대학교 졸업	212 (50.0)	212 (50.0)	424 (100.0)		
	대학원 졸업	18 (43.9)	23 (56.1)	41 (100.0)		
결혼상태	기혼	61 (53.5)	53 (46.5)	114 (100.0)	1.737 (1)	.187
	미혼	196 (46.6)	225 (53.4)	421 (100.0)		
직업	회사원/전문직	157 (48.3)	168 (51.7)	325 (100.0)	19.112 ^{***} (2)	.000
	학생	82 (58.2)	59 (41.8)	141 (100.0)		
	자영업/기타	18 (26.1)	51 (73.9)	69 (100.0)		
월평균 외모관리비 용	5만원 미만	17 (15.3)	94 (84.7)	111 (100.0)	93.605 ^{***} (3)	.000
	5-10만원 미만	71 (40.6)	104 (59.4)	175 (100.0)		
	10-20만원 미만	112 (64.4)	62 (35.6)	174 (100.0)		
	20만원 이상	57 (76.0)	18 (24.0)	75 (100.0)		
전체	257 (48.0)	278 (52.0)	535 (100.0)			

*** $p < .001$

(2) 사용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

사용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에서는 사용 중이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대상 257명(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표 13>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BB크림, CC크림이 2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톤 업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26.7%), 파운데이션 및 쿠션(13.1%), 립 메이크업(9.1%), 컨실러(잡티 커버)9.1%), 아이브로우 펜슬(6.7%), 헤어 커버 쿠션(6.2%)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사용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BB크림 또는 CC크림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성은 색조 화장 보다는 피부를 보정하고 톤 업 시키는 것을 메이크업의 가장 큰 목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모공이 넓으며 다소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 색조화장 실태에 관한 황수연(2014)¹⁰⁷의 연구에서 남성은 메이크업의 시작 단계로 BB크림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전 지역의 성인 남성 49.0%가 자기 관리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BB크림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이상과 같이 남성은 외모 행동의 한 부분으로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였고 그 가운데 BB크림과 CC크림 사용이 가장 많았다.

107) 황수연(2014), 남성 색조 화장품의 제품별 사용 실태 및 인식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4.

<표 13> 사용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

(복수응답)

구분	빈도(N)	백분율(%)
톤업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180	26.7
BB크림, CC크림	197	29.2
아이브로우 펜슬	45	6.7
컨실러(잡티 커버)	61	9.1
파운데이션 및 쿠션	88	13.1
립 메이크업	61	9.1
헤어 커버 쿠션	42	6.2
계	674	100.0

6)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로는 535명을 대상(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표 14>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신감을 얻기 위해(29.2%), 약점을 보완하여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15.5%), 이성교제나 결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므로(10.9%), 구직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7.2%), 기타(0.6%)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20~30대 남성이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로는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성인 자기 몰두에 의한 자기애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김영미, 나윤영(2019)¹⁰⁸의 남성 외모 성공 지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은 대부분 사회적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남성에게 있어 외모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의미보다 자기 관심과 만족에 의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08) 김영미, 나윤영.(2019). 성인 남성의 외모성공지향이 뷰티관리행동과 외모향상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2), p.90.

<표 14>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

(복수응답)

구분	빈도(N)	백분율(%)
자기만족을 위해	364	36.7
자신감을 얻기 위해	290	29.2
약점을 보완하여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154	15.5
이성교제나 결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므로	108	10.9
구직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71	7.2
기타	6	0.6
계	993	100.0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 성향 차이

1)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표 15>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3.46점으로 보통이다(3점)와 그렇다(4점)로 보통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3.46), 25-30세 미만(M=3.48), 30-35세 미만(M=3.41), 35-39세(M=3.49)로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M=3.59)이 미혼(M=3.42)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3.52), 학생(M=3.38), 자영업/기타(M=3.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5$),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이 자영업/기타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3.31), 5-10만원 미만(M=3.44), 10-20만원 미만(M=3.47), 20만 원 이상(M=3.7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의 자아존중감은 보통 이상이며 결혼상태, 직업,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 등이 남성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결혼 상태, 외모관리비용 등은 사회적 지지와 안정감과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소득이나 외모관리행동은 남성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모관리행동과 소득 수준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장은주(2022)¹⁰⁹⁾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표 15> 자아존중감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3.46	0.75	.343	.794	
	25-30세 미만	148	3.48	0.67			
	30-35세 미만	129	3.41	0.74			
	35-39세	111	3.49	0.6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3.50	0.77	.136	.873	
	대학교 졸업	424	3.45	0.70			
	대학원 졸업	41	3.44	0.56			
결혼상태	기혼	114	3.59	0.68	2.273*	.023	
	미혼	421	3.42	0.70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3.52	0.68	3.708*	.025	c<a
	학생(b)	141	3.38	0.72			
	자영업/기타(c)	69	3.32	0.74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3.31	0.71	4.726**	.003	a, b, c<d
	5-10만원 미만(b)	175	3.44	0.61			
	10-20만원 미만(c)	174	3.47	0.72			
	20만원 이상(d)	75	3.70	0.78			
	전체	535	3.46	0.70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 < .05$, ** $p < .01$

109) 장은주(2022),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58

(2)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표 16>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80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2.98), 25-30세 미만(M=2.82), 30-35세 미만(M=2.77), 35-39세(M=2.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나르시시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M=2.72), 대학교 졸업(M=2.81), 대학원 졸업(M=2.80)으로 나르시시즘에 대한 인식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M=2.84)이 기혼(M=2.67)보다 나르시시즘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2.70), 학생(M=3.04), 자영업/기타(M=2.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2.62), 5-10만원 미만(M=2.73), 10-20만원 미만(M=2.81), 20만원 이상(M=3.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나르시시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0~30대 나르시시즘의 수치는 보통보다 조금 낮았으며 요인 별로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일수록, 미혼일수록,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나르시시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0~30대 남성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기과시와 타인의식성이 주된 특성인 나르시시즘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최근 스마트 폰과 개인 소통 채널(SNS,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자기과시나 타인의식성은 현대인들의 셀피 행동¹¹⁰⁾¹¹¹⁾을 통해 타인에게 우월하게 비춰지고 싶은 인간의 보편적 심리기재로서 나르시시즘의 주 특성인 과시 욕구를 충족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 주식 회사’로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셀피 행동이 일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면 현대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이 되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의도적으로 가공하여 타인에게 긍정적 호응과 인정을 유도하는데 이용된다¹¹²⁾.

따라서 이러한 과시 문화는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한 연령층에게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므로 연령이 낮을수록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 트웬지(Jean M. Twenge)¹¹³⁾박사는 SNS가 나르시시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베이비 붐 세대인 부모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양육을 받은 밀레니얼세대의 특성이 SNS를 만나 자기 표현의 꽃을 피웠다고 하였으며 SNS 등장 이후 나르시시즘 증가가 더욱 도드라졌다¹¹⁴⁾고 하였다.

조슈아 그럽스(Joshua Grubbs, 2019)¹¹⁵⁾는 청소년 세대부터 갓 성인이 된 연령의 인구가 가장 나르시시즘적이면서도 자기표현적인 연령대로 보고 있다고 밝혀 20~25세 미만 남성이 나르시시즘이 가장 높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110) 셀피(Selfie)란, 개인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한다(Oxford dictionary, 2013).

111) 김동섭, 백은수, 추호정(2017). 자기제시와 자기표현 태도가 SNS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9(6), p. 702.

112) 김동섭(2016), 셀피의 SNS노출과 패션 제품 노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18.

113) Jean M. Twenge and W. Keith Campbell(2013), Maylath B ,Bakke A .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by Jean M. Twenge and W. Keith Campbell”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 pp.462-467.

114) Julia Shaw.(2021). ‘나’ 1인분 추가요: 나르시시즘은 증가하고 있는가?. BBC 사이언스,null(null), pp.76-77.

115) Joshua B. Grubbs, Julie J. Exline, Jessica McCain, W. Keith Campbell, Jean M. Twenge(2019), Emerging adult reactions to labeling regarding age-group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entitlement

<표 16> 나르시시즘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a)	147	2.98	0.77	8.694***	.000	d<a, b
	25-30세 미만(b)	148	2.82	0.67			
	30-35세 미만(c)	129	2.77	0.60			
	35-39세(d)	111	2.57	0.5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2.72	0.68	.580	.560	
	대학교 졸업	424	2.81	0.66			
	대학원 졸업	41	2.80	0.72			
결혼상태	기혼	114	2.67	0.60	-2.411*	.016	
	미혼	421	2.84	0.68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2.70	0.58	14.063***	.000	a, c<b
	학생(b)	141	3.04	0.79			
	자영업/기타(c)	69	2.79	0.66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2.62	0.58	13.111***	.000	a, b, c<d
	5-10만원 미만(b)	175	2.73	0.54			
	10-20만원 미만(c)	174	2.81	0.70			
	20만원 이상(d)	75	3.20	0.81			
	전체	535	2.80	0.67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 < .05$, *** $p < .001$

4.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1)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

(1) 헤어관리 행동

헤어관리 행동은 <표 17>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98점으로 보통이다 (3점)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2.90), 25-30세 미만(M=3.03), 30-35세 미만(M=2.96), 35-39세(M=3.05)로 헤어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M=3.23)이 미혼(M=2.92)보다 헤어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1$).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3.07), 학생(M=2.97), 자영업/기타(M=2.6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 학생이 자영업/기타보다 헤어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사원/전문직, 학생이 헤어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들의 사회 경쟁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헤어관리는 비교적 손쉬운 행동으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사회활동이 활발한 남성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헤어관리행동이 비즈니스 경쟁력에서 자신감을 얻기 위함으로 사회문화적 의식에서 작용한다고 주장한 김혜균(2013)¹¹⁶⁾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2.13), 5-10만원 미만(M=2.97),

116) 김혜균(2013),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 행동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3.

10-20만원 미만(M=3.24), 20만원 이상(M=3.6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헤어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기혼, 회사원/전문직, 학생, 그리고 월 평균 외모관리행동 비용이 많을수록 헤어관리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7> 헤어관리 행동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2.90	1.04	.647	.585	
	25-30세 미만	148	3.03	0.97			
	30-35세 미만	129	2.96	0.98			
	35-39세	111	3.05	1.0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2.90	1.03	.325	.723	
	대학교 졸업	424	3.00	1.01			
	대학원 졸업	41	2.95	0.91			
결혼상태	기혼	114	3.23	1.03	3.020**	.003	
	미혼	421	2.92	0.99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3.07	0.96	6.419**	.002	c<a, b
	학생(b)	141	2.97	1.04			
	자영업/기타(c)	69	2.60	1.06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2.13	0.88	55.562***	.000	a<b, c<d
	5-10만원 미만(b)	175	2.97	0.81			
	10-20만원 미만(c)	174	3.24	0.88			
	20만원 이상(d)	75	3.68	1.03			
	전체	535	2.98	1.00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 < .01$, *** $p < .001$

(2) 피부관리행동

피부 관리 행동은 <표 18>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3.02점으로 보통이다(3점)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3.06), 25-30세 미만(M=3.11), 30-35세 미만(M=2.98), 35-39세(M=2.92)로 피부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M=3.07), 미혼(M=3.01)으로 피부 관리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3.07), 학생(M=3.20), 자영업/기타(M=2.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 학생이 자영업/기타보다 피부 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2.25), 5-10만원 미만(M=2.95), 10-20만원 미만(M=3.30), 20만원 이상(M=3.7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피부 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은 남성일수록 피부관리행동이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는 현대의 젊은 남성들이 피부 관리를 위해 기초화장품 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이나 피부과 시술 등의 관리에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이 피부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허지화(2013)¹¹⁷⁾의 남성 피부 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직 남성 그리고 소득이 높은 남성이 피부 관리 행동 빈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온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117) 허지화(2013), 남성의 피부지식과 자가 피부 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57.

<표 18> 피부관리 행동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3.06	0.95	1.084	.355	
	25-30세 미만	148	3.11	0.90			
	30-35세 미만	129	2.98	0.93			
	35-39세	111	2.92	0.9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a)	70	2.75	1.00	4.188*	.016	a<b
	대학교 졸업(b)	424	3.08	0.91			
	대학원 졸업(c)	41	2.93	0.91			
결혼상태	기혼	114	3.07	1.01	.575	.566	
	미혼	421	3.01	0.90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3.07	0.90	16.746***	.000	c<a, b
	학생(b)	141	3.20	0.89			
	자영업/기타(c)	69	2.46	0.90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2.25	0.83	59.720***	.000	a<b<c<d
	5-10만원 미만(b)	175	2.95	0.79			
	10-20만원 미만(c)	174	3.30	0.78			
	20만원 이상(d)	75	3.71	0.85			
	전체	535	3.02	0.93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 < .05$, *** $p < .001$

(3) 체형관리 행동

체형관리 행동은 <표 19>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41점으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이다(3점) 사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2.41), 25-30세 미만(M=2.46), 30-35세 미만(M=2.42), 35-39세(M=2.36)로 체형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2.45), 학생(M=2.50), 자영업/기타(M=2.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5$),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학생이 자영업/기타보다 체형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학생 그룹에서 체형관리행동이 높게 나온 이유는 체형이 개인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인관계나 연애, 결혼, 취업에까지도 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들이 미래에 겪을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회 활동을 고려하여 외모관리행동을 하고 있으며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써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함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윤민재(2020)의 한국 사회의 경쟁과 자기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개발의 한 차원으로 외모관리행동을 하며 그 가운데 헬스 등으로 체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¹¹⁸⁾.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1.64), 5-10만원 미만(M=2.31), 10-20만원 미만(M=2.60), 20만 원 이상(M=3.3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

118) 윤민재(2020), 한국 사회의 경쟁과 자기 개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pp.1257-1269.

이 많을수록 체형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체형관리행동은 직업이나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9> 체형관리 행동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2.41	1.13	.193	.901	
	25-30세 미만	148	2.46	1.11			
	30-35세 미만	129	2.42	1.05			
	35-39세	111	2.36	1.0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2.27	0.94	.722	.486	
	대학교 졸업	424	2.43	1.11			
	대학원 졸업	41	2.48	1.13			
결혼상태	기혼	114	2.47	1.22	.605	.546	
	미혼	421	2.40	1.05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2.45	1.07	4.036*	.018	c<a, b
	학생(b)	141	2.50	1.14			
	자영업/기타(c)	69	2.07	1.01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1.64	0.78	51.223***	.000	a<b<c<d
	5-10만원 미만(b)	175	2.31	0.99			
	10-20만원 미만(c)	174	2.60	1.01			
	20만원 이상(d)	75	3.37	1.03			
	전체	535	2.41	1.09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05$, *** $p<.001$

(4) 성형관리 행동

성형관리 행동은 <표 20>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74점으로 보통이다 (3점)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2.78), 25-30세 미만(M=2.71), 30-35세 미만(M=2.74), 35-39세(M=2.73)로 성형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M=2.94)이 미혼(M=2.69)보다 성형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2.79), 학생(M=2.80), 자영업/기타(M=2.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학생이 자영업/기타보다 성형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회사원/전문직, 그리고 학생 그룹이 성형관리행동이 높은 이유로는 높은 교육 수준과 고 스펙의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변별의 한 도구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성형은 어쩌면 생존과도 연결점이 있다. 첨단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30~40대의 남성 직장인들이 보톡스나 레이저시술, 눈가나 피부 주름을 없애는 리프팅시술 등을 받는 것이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전했다. 단순히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뒤쳐지지 않기 위한 생존의 방편으로 성형시술이 만연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¹¹⁹⁾.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2.24), 5-10만원 미만(M=2.57), 10-20만원 미만(M=2.88), 20만원 이상(M=3.5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119) 한국일보(2020), [특파원 24시] 실리콘밸리, 남성 성형 바람 왜? “생존 위한 투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1121508068195?did=kk> (검색일, 2024.04.16.)

있었고($p<.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성형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성형관리 행동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2.78	1.02	.104	.958	
	25-30세 미만	148	2.71	1.00			
	30-35세 미만	129	2.74	0.96			
	35-39세	111	2.73	0.9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2.64	1.00	.603	.547	
	대학교 졸업	424	2.76	1.00			
	대학원 졸업	41	2.66	0.88			
결혼상태	기혼	114	2.94	1.06	2.428*	.016	
	미혼	421	2.69	0.96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2.79	0.99	4.808**	.009	c<a, b
	학생(b)	141	2.80	0.98			
	자영업/기타(c)	69	2.40	0.93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2.24	0.79	33.936***	.000	a<b<c<d
	5-10만원 미만(b)	175	2.57	0.95			
	10-20만 원 미만(c)	174	2.88	0.92			
	20만 원 이상(d)	75	3.54	0.94			
	전체	535	2.74	0.99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05$, ** $p<.01$, *** $p<.001$

(5) 의복관리 행동

의복관리 행동은 <표 21>과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39점으로 그렇지 않다(2점)와 보통이다(3점) 사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2.36), 25-30세 미만(M=2.37), 30-35세 미만(M=2.39), 35-39세(M=2.46)로 의복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혼상태별로는 기혼(M=2.53), 미혼(M=2.35)으로 의복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2.47), 학생(M=2.40), 자영업/기타(M=2.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학생이 자영업/기타보다 의복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1.68), 5-10만원 미만(M=2.30), 10-20만원 미만(M=2.53), 20만원 이상(M=3.3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의복관리 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의복관리행동은 직업과 월 평균 외모관리행동 비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영업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전체 외모관리행동에서 대부분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관리행동에 있어서도 자영업 그룹은 비교적 타인을 의식하거나 구직 등의 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21>의복관리 행동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2.36	1.04	.234	.872	
	25-30세 미만	148	2.37	1.02			
	30-35세 미만	129	2.39	1.01			
	35-39세	111	2.46	0.9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2.40	0.84	.009	.991	
	대학교 졸업	424	2.39	1.02			
	대학원 졸업	41	2.38	1.01			
결혼상태	기혼	114	2.53	1.03	1.683	.093	
	미혼	421	2.35	0.98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2.47	1.00	6.237**	.002	c<a, b
	학생(b)	141	2.40	1.03			
	자영업/기타(c)	69	2.00	0.82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1.68	0.76	54.559***	.000	a<b, c<d
	5-10만원 미만(b)	175	2.30	0.92			
	10-20만원 미만(c)	174	2.53	0.89			
	20만원 이상(d)	75	3.32	0.89			
	전체	535	2.39	1.00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 < .01$, *** $p < .001$

(6)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표 22>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77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25세 미만(M=2.76), 25-30세 미만(M=2.81), 30-35세 미만(M=2.75), 35-39세(M=2.75)로 외모관리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전문직(M=2.83), 학생(M=2.85), 자영업/기타(M=2.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회사원/전문직/학생이 자영업/기타보다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모관리비용별로는 5만원 미만(M=2.03), 5-10만원 미만(M=2.69), 10-20만원 미만(M=2.98), 20만원 이상(M=3.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사후검정인 Scheffe test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결과는 대부분의 외모관리행동 하위 요인에 직업 별 학생 그룹과 월 평균 외모관리행동 비용이 높은 그룹이 외모관리행동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김혜균(2013)¹²⁰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20~30대 남성은 직업의 특성과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 등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20) 김혜균(2013),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 행동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3.

<표 22> 외모관리행동

	구분	N	Mean ¹⁾	SD	F or t	p	Scheffe
연령	20-25세 미만	147	2.76	0.80	.143	.934	
	25-30세 미만	148	2.81	0.84			
	30-35세 미만	129	2.75	0.82			
	35-39세	111	2.75	0.8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70	2.63	0.75	1.292	.276	
	대학교 졸업	424	2.80	0.83			
	대학원 졸업	41	2.73	0.85			
결혼상태	기혼	114	2.90	0.93	1.715	.088	
	미혼	421	2.74	0.78			
직업	회사원/전문직(a)	325	2.83	0.82	11.611***	.000	c<a, b
	학생(b)	141	2.85	0.78			
	자영업/기타(c)	69	2.34	0.76			
월평균 외모관리 비용	5만원 미만(a)	111	2.03	0.65	85.210***	.000	a<b<c<d
	5-10만원 미만(b)	175	2.69	0.67			
	10-20만원 미만(c)	174	2.98	0.68			
	20만원 이상(d)	75	3.56	0.72			
	전체	535	2.77	0.82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001

3)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1)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는 <표 23>과 같다.

헤어관리 행동은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M=3.22)이 자아존중감 수준 낮음(M=2.74)보다 헤어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피부관리 행동은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M=3.18)이 자아존중감 수준 낮음(M=2.87)보다 피부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체형관리 행동은 자아존중감 수준 낮음(M=2.35),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M=2.47)으로 체형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형관리 행동은 자아존중감 수준 낮음(M=2.68),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M=2.80)으로 성형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의복관리 행동은 자아존중감 수준 낮음(M=2.39),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M=2.39)으로 의복관리 행동이 비슷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외모관리행동은 자아존중감 수준 높음(M=2.89)이 자아존중감 수준 낮음(M=2.65)보다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1$).

외모관리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존중감은 헤어관리행동과 피부 관리 행동 그리고 일반적 외모관리 행동 등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타인 의식적 심리 동기가 자기 주체적인 심리동기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구분	자아존중감 수준	N	Mean ¹⁾	SD	t	p
헤어관리	저	263	2.74	0.97	-5.613***	.000
	고	272	3.22	0.98		
피부관리	저	263	2.87	0.84	-3.979***	.000
	고	272	3.18	0.98		
체형관리	저	263	2.35	1.03	-1.303	.193
	고	272	2.47	1.14		
성형관리	저	263	2.68	0.96	-1.460	.145
	고	272	2.80	1.02		
패션관리	저	263	2.39	0.97	-.079	.937
	고	272	2.39	1.02		
외모관리행동	저	263	2.65	0.78	-3.333**	.001
	고	272	2.89	0.84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 < .01$, *** $p < .001$

(2)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는 <표 24>와 같다.

헤어관리 행동은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M=3.18)이 나르시시즘 수준 낮음(M=2.82)보다 헤어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피부관리 행동은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M=3.18)이 나르시시즘 수준 낮음(M=2.90)보다 피부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체형관리 행동은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M=2.70)이 나르시시즘 수준 낮음(M=2.17)보다 체형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성형관리 행동은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M=2.94)이 나르시시즘 수준 낮음(M=2.57)보다 성형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의복관리 행동은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M=2.64)이 나르시시즘 수준 낮음(M=2.18)보다 의복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의복 관리 행동은 과거부터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왔다.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과시하려는 성향이 강한 나르시시즘 성향의 사람들은 의복관리행동을 자신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모관리행동은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M=2.97)이 나르시시즘 수준 낮음(M=2.60)보다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결과적으로 외모관리행동은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성격요인에 대한 김수민(2019)의 연구에서 나르시시즘은 외모관리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¹²¹⁾.

<표 24> 나르시시즘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구분	나르시시즘 수준	N	Mean ¹⁾	SD	t	p
헤어관리	저	291	2.82	0.98	-4.118***	.000
	고	244	3.18	1.00		
피부관리	저	291	2.90	0.92	-3.506***	.000
	고	244	3.18	0.91		
체형관리	저	291	2.17	1.02	-5.836***	.000
	고	244	2.70	1.10		
성형관리	저	291	2.57	0.97	-4.414***	.000
	고	244	2.94	0.98		
패션관리	저	291	2.18	0.95	-5.403***	.000
	고	244	2.64	1.00		
외모관리행동	저	291	2.60	0.78	-5.430***	.000
	고	244	2.97	0.81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001

121) 김수민(2018). 남녀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지각된 신체중요도, 외모자신감 및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2), pp.225-242.

(3)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는 <표 25>와 같다.

헤어관리 행동은 자기에 성향 수준 높음(M=3.27)이 자기에 성향 수준 낮음(M=2.68)보다 헤어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피부관리 행동은 자기에 성향 수준 높음(M=3.24)이 자기에 성향 수준 낮음(M=2.80)보다 피부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체형관리 행동은 자기에 성향 수준 높음(M=2.68)이 자기에 성향 수준 낮음(M=2.14)보다 체형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성형관리 행동은 자기에 성향 수준 높음(M=2.96)이 자기에 성향 수준 낮음(M=2.51)보다 성형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의복관리 행동은 자기에 성향 수준 높음(M=2.58)이 자기에 성향 수준 낮음(M=2.19)보다 패션관리 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외모관리행동은 자기에 성향 수준 높음(M=3.00)이 자기에 성향 수준 낮음(M=2.53)보다 외모관리행동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이와 같이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더 높은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진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에 성향이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5>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차이

구분	자기애 성향 수준	N	Mean ¹⁾	SD	t	p
헤어관리	저	263	2.68	0.98	-7.085***	.000
	고	272	3.27	0.95		
피부관리	저	263	2.80	0.86	-5.641***	.000
	고	272	3.24	0.94		
체형관리	저	263	2.14	0.98	-5.948***	.000
	고	272	2.68	1.12		
성형관리	저	263	2.51	0.95	-5.356***	.000
	고	272	2.96	0.98		
패션관리	저	263	2.19	0.92	-4.686***	.000
	고	272	2.58	1.03		
외모관리행동	저	263	2.53	0.74	-7.008***	.000
	고	272	3.00	0.82		

¹⁾ 전혀 그렇지 않다=1, 보통이다=3, 매우 그렇다=5

*** p<.001

5.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피고자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고,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이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상인 경우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데(Kline, 2011), 본 연구에서는 <표 26>과 같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범위	왜도	첨도
자기애 성향	자아존중감	3.46	0.70	1-5	-.315	.247
	나르시시즘	2.80	0.67	1-5	.507	1.084
	자기애 성향	3.09	0.45	1-5	.505	1.230
외모관리행동	헤어관리	2.98	1.00	1-5	-.111	-.656
	피부관리	3.02	0.93	1-5	-.240	-.537
	체형관리	2.41	1.09	1-5	.184	-1.001
	성형관리	2.74	0.99	1-5	.067	-.593
	패션관리	2.39	1.00	1-5	.161	-.906
	외모관리행동	2.77	0.82	1-5	.054	-.645

2) 상관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27>과 같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은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인 헤어관리($r=.228, p<.001$), 피부관리($r=.138, p<.01$), 외모관리행동 전체($r=.140, p<.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나르시시즘은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인 헤어관리($r=.214, p<.001$), 피부관리($r=.188, p<.001$), 체형관리($r=.287, p<.001$), 성형관리($r=.225, p<.001$), 패션관리($r=.287, p<.001$), 외모관리행동 전체($r=.280, p<.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에 성향은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인 헤어관리($r=.334, p<.001$), 피부관리($r=.251, p<.001$), 체형관리($r=.293, p<.001$), 성형관리($r=.225, p<.001$), 패션관리($r=.268, p<.001$), 외모관리행동 전체($r=.330, p<.001$)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27>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자기에 성향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나르시시즘	자기에 성향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형관리	성형관리	패션관리	외모관리행동		
자기에 성향	자아존중감	1										
	나르시시즘	-.142**	1									
	자기에 성향	.558***	.742***	1								
외모관리행동	헤어관리	.228***	.214***	.334***	1							
	피부관리	.138**	.188***	.251***	.668***	1						
	체형관리	.077	.287***	.293***	.585***	.588***	1					
	성형관리	.054	.225***	.225***	.502***	.522***	.631***	1				
	패션관리	.040	.287***	.268***	.579***	.598***	.725***	.593***	1			
	외모관리행동	.140**	.280***	.330***	.823***	.875***	.821***	.738***	.835***	1		

** $p<.01$, *** $p<.001$

6. 자기애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자기애 성향이 헤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 성향이 헤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21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2.038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 성향이 헤어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R^2=.114$ 로 나타나 11.4%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34.151$ 로 나타나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애 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 ($\beta=.264, p<.001$), 나르시시즘($\beta=.251, p<.001$)은 헤어관리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존중감, 나르시시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남성들의 헤어관리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 외모관리행동이 부각되기 이전부터 다른 외모관리에 비해 비교적 일상적으로 이어오던 헤어관리행동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자아존중감 성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헤어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안채윤(2019)¹²²⁾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으로 이어지는 동기가 될 수 있다.

122) 안채윤(2019),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pp.620-631.

<표 28> 자기애 성향이 헤어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헤어관리 행동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614	.290		2.119	.035		
자아존중감	.378	.059	.264	6.391***	.000	.980	1.021
나르시시즘	.379	.062	.251	6.095***	.000	.980	1.021
R^2	.114					D/W	
$F(p)$	34.151***(.000)					2.038	

*** $p < .001$

2) 자기에 성향이 피부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성향이 피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29>와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21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1.941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이 피부 관리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R^2=.063$ 으로 나타나 6.3%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17.887$ 로 나타나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beta=.168, p<.001$), 나르시시즘($\beta=.212, p<.001$)은 피부 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나르시시즘,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이 피부관리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신체를 아끼며 관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과거 신라시대에서도 깨끗한 피부가 미의 첫 번째 요건이었으며 고구려 벽화에서는 얼굴을 하얗게 칠하여 곱고 흰 피부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피부의 청결을 중요시 여겼는데 쌀가루(백분)로 얼굴을 하얗게 하는 것이 외모를 신경 쓰는 남성들 사이에 유행이 되었다. 또 고려시대의 남성들은 수세미 등을 꿰인 물로 미안수를 만들어 얼굴을 가꿨고 꿀 찌꺼기로 기미나 주근깨 등을 관리하였다¹²³⁾. 이처럼 과거 역사 속에서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남성들은 흠결 없는 깨끗한 피부를 가꾸기

123) 장등희(2024). “아름다운 남자” 만들기 : 20대·30대 한국 남성의 외모관리의 일상과 유행의 원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p.13-15.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대를 불문하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관심을 쏟는 남성들은 피부를 아름다움의 중요한 요건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대처럼 SNS 등 개인 소통 채널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타인에게 노출하는 가운데 사진이나 영상속의 깨끗한 피부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자아존중감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나르시시즘 성향의 남성들은 깨끗하고 매력적인 피부를 통해 우월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자극되어 피부에 더 많이 신경을 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기에 성향과 피부 관리 행동 간의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규명한 이미림(2021)¹²⁴⁾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29> 자기에 성향이 피부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피부관리 행동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432	.275		5.215	.000		
자아존중감	.222	.056	.168	3.963***	.000	.980	1.021
나르시시즘	.294	.059	.212	4.998***	.000	.980	1.021
R^2	.063					D/W	
F(p)	17.887***(.000)					1.941	

*** $p < .001$

124) 이미림, 김병관(2020), 자기에성향이 피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피부상태 인식 매개효과 중심으로 -. 국제보건미용학회지 14(2), pp.61-78.

3) 자기에 성향이 체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성향이 체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21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1.797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이 체형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R^2=.097$ 로 나타나 9.7%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28.465$ 로 나타나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beta=.120$, $p<.01$), 나르시시즘($\beta=.304$, $p<.001$)은 체형관리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나르시시즘,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남성들의 체형관리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자기에 성향이 20~30대 남성의 체형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르시시즘은 자아존중감보다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으며 이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남성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미의 기준에 일치하길 원하며 타인을 의식하는 특성이 체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나르시시즘성향이 체형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혜균, 박명희(2014)¹²⁵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

125) 김혜균, 박명희(2014),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9-327.

<표 30> 자기애 성향이 체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체형관리 행동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76	.317		1.186	.236		
자아존중감	.187	.065	.120	2.885**	.004	.980	1.021
나르시시즘	.497	.068	.304	7.311***	.000	.980	1.021
R^2	.097					D/W	
$F(p)$	28.465***(.000)					1.797	

** $p < .01$, *** $p < .001$

4) 자기에 성향이 성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성향이 성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21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2.132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이 성형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R^2=.058$ 로 나타나 5.8%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16.371$ 로 나타나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beta=.087, p<.05$), 나르시시즘($\beta=.237, p<.001$)은 성형관리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나르시시즘,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남성들의 성형관리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대적 영향력이 나르시시즘이 더 높은 이유로는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남성은 인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도 불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는 성형행동과 나르시시즘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규명한 전대근 등(2020)¹²⁶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남성은 성형을 포함한 외모 관리에 더 큰 투자를 할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6) 전대근 외(2020), 자기에, BMI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 산업학회지, ISSN 22(1), p.107.

<표 31> 자기애 성향이 성형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성형관리 행동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1.329	.294		4.520	.000		
자아존중감	.123	.060	.087	2.051*	.041	.980	1.021
나르시시즘	.352	.063	.237	5.579***	.000	.980	1.021
R^2						.058	
$F(p)$						16.371***(.000)	
						D/W	
						2.132	

* $p < .05$, *** $p < .001$

5) 자기에 성향이 의복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성향이 의복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21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2.045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이 의복관리 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R^2=.089$ 로 나타나 8.9%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26.009$ 로 나타나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beta=.082$, $p<.05$), 나르시시즘($\beta=.299$, $p<.001$)은 의복관리 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나르시시즘,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남성들의 의복관리 행동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의 남성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이나 특별함을 강조함으로써 과시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결과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자기에 성향과 의복행동에 관한 최미영, 이재일(2016)¹²⁷⁾의 연구에서 자기 고양적 자기애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의 의복 의존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며 자기에, BMI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대근 외(2020)¹²⁸⁾의 연구에서 타인 의존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이 의복 관리 행동에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결과에 부합한다.

127) 최미영, 이재일(2016),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자기에 성향과 외모 관련 의복 행동의 관계에서 비만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0(4), pp.625-627.

128) 전대근 외(2020), 자기에, BMI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 산업학회지, ISSN 22(1), p.107.

<표 32> 자기애 성향이 의복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의복관리 행동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731	.292		2.504	.013		
자아존중감	.118	.060	.082	1.973*	.049	.980	1.021
나르시시즘	.447	.063	.299	7.147***	.000	.980	1.021
R^2						D/W	
$F(p)$	26.009***(.000)					2.045	

* $p < .05$, *** $p < .001$

6)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우선 분석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21로 10보다 작게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D/W값은 1.958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 정도는 $R^2=.112$ 로 나타나 11.2%의 설명력이 확인되었고, $F=33.437$ 로 나타나 유의수준 $\alpha=.001$ 에서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 중에서 자아존중감($\beta=.183, p<.001$), 나르시시즘($\beta=.307, p<.001$)은 외모관리행동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나르시시즘,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기에의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은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자기에 성향이 의복, 성형, 체형 등 외모관리행동의 하위 영역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관계를 규명한 박은정, 정명선(2010)¹²⁹, 전대근 등(2020), 이영아(2020)¹³⁰, 송지현 등(2020)¹³¹의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의 하위분류 대부분에서 나르시시즘의 상대적 영향력이 자아존중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나르시시즘 성향자들의 외모를 통한 과시와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려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자아존중감의 동기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9) 박은정, 정명선(2011),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 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43-146.

130) 이영아(2020) 외현적 자기에와 외모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p.420.

131) 송지현,김경희(2020),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복문화학회 23(2), pp.72-73,78.

<표 33> 자기애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인	외모관리행동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974	.236		4.119	.000		
자아존중감	.215	.048	.183	4.445***	.000	.980	1.021
나르시시즘	.377	.051	.307	7.426***	.000	.980	1.021
R^2						D/W	
$F(p)$	33.437***(.000)					1.958	

*** $p < .001$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한민국 20~30대 남성 535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의 수준을 알아보고 각 요인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하여 현대인의 두드러지는 특성인 자기에 성향이 20~30대 남성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을 살펴본 결과,

35~39세 미만, 기혼, 회사원/전문직,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의복관리행동이 높았고 20~25세 미만, 미혼, 학생,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피부 관리행동이 높았다. 성형 및 시술 경험은 있음보다 없음이 더 높았으며 회사원과 학생 그룹은 성형 경험 있음 수준이 비슷하였고 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높을수록 성형 경험 있음도 함께 높았다. 성형 및 시술 부위로는 피부레이저, 눈썹 및 헤어 문신 순으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 경험이 많았고 사용 중인 기초화장품은 로션과 스킨 순이며 연구 대상자들은 피부 보습을 위해 기초화장품을 사용하였다. 메이크업 사용 경험 여부는 있음과 없음이 비슷했으며 사용 제품으로는 BB크림과 같이 피부 보정용이 많았다. 또한 20~30대 남성은 외모관리행동을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에 성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평균이 3.46으로 보통보다 높았으며 기혼, 회사원/전문직,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나르시시즘은 평균이 2.80으로 보통보다 조금 낮았으며 미혼, 학생,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이 많을수록 나르시시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헤어관리행동은 기혼, 회사원/ 전문직,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이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피부와 체형 관리행동은 학생,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이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형관리행동에서는 기혼, 학생,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이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복관리행동과 일반적인 외모관리 행동에서는 회사원/ 전문직, 월 평균 외모관리 비용이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자기에 성향 수준에 따른 외모 관리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 존중감 수준 높음은 헤어, 피부, 일반적 외모관리행동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나르시시즘 수준 높음은 헤어, 피부, 체형, 성형, 의복, 일반적 외모관리 행동 등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은 외모관리행동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헤어관리행동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상대적 영향력이 높았으며 헤어관리행동을 제외한 모든 외모관리행동에서 나르시시즘이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대한민국 20~30대 남성의 자아존중감은 보통 이상(3.46점)이며 나르시시즘은 보통보다 조금 낮은(2.80점)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인들의 자기에 성향에 대한 실증적 수치를 제공하였으며 자기에 성향이나 나르시시즘 성향의 증가 추이가 반드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에 성향의 하위 영역인 자아존중감과 나르시시즘은 남성의 외모관리 행동 전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이 외모관리 행동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인을 의식하는데서 기인하는 나르시시즘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만족에 초점을 두는 자아존중감보다 더 강한 내적 동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자기에성향을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달리 긍정적, 부정적 개념인 나르시시즘과 자아존중감으로 분류하여 전국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자기에성향과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전 연령의 남성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전 연령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남성 뷰티 시장에서 일반화 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둘째, 기존 선행 연구에서 자기에에 관한 설문 대부분이 나르시시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본 연구의 설문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의 성향은 모든 산업 분야의 소비패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현대인의 일반적 특성으로써 자기에의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긍정적, 부정적 개념의 이차원적 해석이라는 한계를 넘어 현대 사회의 복잡한 특성을 반영한 복합적인 개념의 자기에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산업화와 개인주의에 따른 현대인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산업 전반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소비 행동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성향에 대한 연구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남성 뷰티 산업에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 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남성 외모관리행동을 이해하고 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금미 (201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신체매력지각이 화장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강복희 (2022) 남성 헤어스타일의 관심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일반대학원. p.87.
- 강상욱 (2019) 운동선수 나르시시즘 구성개념 정립 및 측정도구 개발.“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pp.705-723.
- 강유림, 김문영 (2021)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개발-직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29(2), pp.167-184.
- 강은영 (2002) 자기주도적 자기에 및 타인의존적 자기에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국내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강평미 (2014) 사회성,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p.6-7.
- 구양숙, 이영주, 추태귀 (2010) 남성들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I).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4).
- 김가람, 진용미 (2019) 미용소비행동이 자아존중감과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4), pp.27-36.

- 김경하 (2014) 아버지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p.18.
- 김나희 (2012) 20대 남성의 피부 상태에 대한 자가 인식수준이 피부 관리 행위 실천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pp.5-8.
- 김동민 (2023)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에 개념에 대한 고찰. 고향논집, pp.33-52.
- 김동섭(2016), 셀피의 SNS노출과 패션 제품 노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18.
- 김동섭, 백은수, 추호정(2017). 자기제시와 자기표현 태도가 SNS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9(6), p.702.
- 김미경 (2003) 자기에적 성격특성의 패션브랜드 디자인에 관한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동덕대학교 대학원. p.26.
- 김미령 (2012) 중년 남성의 피부 건강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피부 관리 적용 후의 변화. 국내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p.1.
- 김민채 (2018) 남성의 생활습관과 피부관리 태도가 안면피부상태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5.
- 김부영 (2020) 여성의 자기에 성향과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영산대학교. pp.7-9.
- 김성령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민 (2018) 남녀대학생의 나르시시즘, 지각된 신체중요도, 외모자신감 및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9(2), pp.225-242.

- 김유성 (2011) 자기에성향별 신체매력성 지각이 미용추구혜택 및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p.1.
- 김유성, 박옥련 (2009)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심도, 미용행동 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0(3), pp.113-126.
- 김연경 (2009) 미세 다룬침(MTS)과 AHA필링이 남성피부의 모공과 색소 침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김영경, 박선영 (2009) 남자 고등학생의 화장품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31. pp.319-335.
- 김영미, 나운영 (2019) 성인 남성의 외모성공지향이 뷰티관리행동과 외모향상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2), pp.79-91.
- 김정하 (2017) 20~30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김창숙 (2017) 남자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 피부외모관심 및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pp.13-16.
- 김향숙 (2012) 여고생의 외모관리행동과 올바른 식생활과의 상관관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3.
- 김해정 (2004) 외모 관리.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23.
- 김혜균 (2013)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외모관리 행동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pp.7-8.
- 김혜균, 박명희 (2014) 20·30대 직장인 남성들의 사회심리적 의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4(4), pp.319-327.

- 권순분 (2004) 20대 남자 대학생의 화장품에 대한 지식 및 구매 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 노선옥 (2011) 대인관계성향, 생활만족도와 헤어스타일행동 및 화장동기의 관계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p.5.
- 남인숙 (2008) 따돌림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유용성. 사회이론,(33), pp.144-148.
- 류지원 (2005) 남성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및 지각자 특성이 이미지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1(1), pp.41-42.
- 류해리, 차우정, 강나경, 진용미 (2014) 남성의 헤어스타일 행동 유형에 따른 미용실 이용실태와 선호 헤어스타일.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20(2), pp.151-152.
- 맹동례 (2016) 나르시시즘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성찰. 영상기술연구,(24), pp.41-64.
- 민준식 (2017) 피부 보정용 색조 화장품군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 및 실태. 중앙대학교 의약식품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 박선경(2010) 기독교적 관점에서 고찰한 청소년기 자기에 적 성격.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0-31.
- 박순형 (20220) MZ세대의 특성과 언어 사용 연구. 한말연구 63(18), p.1.
- 박영호, 유재봉 (2018) 아리스토텔레스 필리아 개념의 교육적 의미 <교육 철학> 67호. pp.25-44.
- 박은정, 정명선 (2011)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이미지가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143-146.
- 박혜영 (2018) 밀레니얼 세대의 남성 메이크업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0-41.
- 배소현 (2020) 젠더이퀄리티가 자아존중감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백선아 (2021)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이 자기이미지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인선, 홍병숙 (2007)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비교가 외모정보 활용, 외모관리 및 패션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36-38.
- 서경현, 양승애 (2010) 여대생의 자기에 및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심리적 스트레스. 스트레스유형, 18(4), pp.371-378.
- 서은혜 (2011) 자기에 성향, 신체의식과 외모관리행동 및 화장의 심리적 효용의 관계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성미애 (2005) 직장남성들의 피부관리에 대한인식 및 태도.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pp.17-22.
- 손정희, 김찬석, 이현선 (2021) M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고유 특성에 대한 각 세대별 반응 연구 -MZ세대, X세대, 베이비붐세대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77, p.205.
- 송지현 (2020) 자기에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 송지현, 김경희 (2020)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복문화학회 23(2), pp.72-73,78.
- 신현욱 (2006) 남성 외모관리행동의 영향 요인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7.
- 신정원 (2023) 20-30대 직장 남성의 체면민감성이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에 따라 화장품 구매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신주동, 최중명 (2008)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p.308.

- 안두환 (2021) 장-자크 루소의 자기 편애의 추론적 역사학 : 혁명과 전쟁. 정치사상연구, 27(2). pp.9-43.
- 안미나 (2016) 20-40대 남성의 외모관리 기대가치에 따른 의복추구혜택과 영향요인.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10.
- 안정화 (2011) 남성의 피부관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 안채리 (2011) 남자대학교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안채윤 (2019) 신체이미지가 외모관리행동,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6), pp.620-631.
- 이경숙 (2004) 대학생의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p.27-28.
- 이미림, 김병관 (2020) 자기에 성향이 피부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피부상태 인식 매개 효과 중심으로. 국제보건미용학회지 14(2), pp.61-78.
- 이미숙 (2014) 성인 남성의 객체화 신체의식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연구 복식문화연구, 22(5), pp.809 - 822
- 이선경, 박선웅,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2014)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시교차메타분석 (1999-2014).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pp.609-625.
- 이영아 (2020) 외현적 자기애와 외모관리행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pp.413-422.
- 이은채 (2022) 20-30대 남성들의 피부 유형에 따른 피부 건강 실천행위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p.4.
- 이재현 (2018) 한국 청년들의 개인주의 문화와 목회적 돌봄-은밀한 자기애적 성향의 청년들에 대한 목회적 대응. 장신논단 50(2). pp.285-303.

- 이제성 (2021) 밀레니얼 소비자의 외모관리행동 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p.24.
- 이주영 (2012) 여성의 외모 관리 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pp.2-3.
- 이지영, 박길순 (2014) 피부관리의 내적·외적 통제요인, 행동의도와 피부관리행동과의 관계분석.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2(4), p.510.
- 이지현 (2003) 남자대학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성역할 정체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pp.1-88.
- 이창우 (2021)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서 우정과 자기에. 철학사상.79호, pp3-3.
- 오인영 (2006)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 뉴스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20.
- 엄수정 (2014) 피부관리와 안면미용성형의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생애복지대학원. p.11.
- 임경복 (2010)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 행동과 의복추구혜택에 관한 연구: 가치관과 사회적 자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4), pp.29-41.
- 임은정(2019) 나르시시즘이 외모관리행동과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 임인숙 (2005)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여성의 몸. 성평등연구 9. pp.43-63.
- 임애득 (2020) 자기에성향과 색채성향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신대학원대학교. pp.8-10.
- 유제이 (2018)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외모관심도가 피부·모발 인식과 뷰티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해숙 (2013) 외모관심도 및 외모관리행동이 미용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p.8.
- 윤민재 (2020) 한국사회의 경쟁과 자기계발, 그리고 자아테크놀로지: 청년세대 문제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 21 11(2), pp.1257-1269.
- 윤상미 (2014) 중년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따른 외모관리 인식.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윤소영 (2007) 여대생의 외모관리에 대한 의식 및 태도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pp.3-4.
- 장명자 (2014) 20~30대 남성의 피부 관심도 및 피부 건강관리 행위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p.9.
- 장 미 (2014)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p.13.
- 장은주 (2022)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8.
- 전대근, 곽선경, 안동현, 성수형, & 박순지. (2020). 자기에, BMI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이 셀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pISSN, 22(1).
- 정나리, 조대엽 (2023) 2000년대 한국의 세대 개념과 청년세대 호칭의 유형. 한국사회 24(1), pp.7-8.
- 정순용 (2015) 여성신체장애인의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p.4.
- 정성아 (2024) 남성 헤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관심도와 헤어관리행동의 차이. 국내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p.19.
- 정은영 (2013) 여자프로선수의 외모관리행동이 스포츠자신감과 스포츠몰입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정재명 (2020) 20~30대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인식과 화장품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6.
- 정호민 (2021) 여성의 루키즘이 감성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소비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원 일반대학원.
- 정혜정, 이유리 (2011) 2030대와 4050대 남성소비자들의 외모관리 기대가치가 남성 정장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5(2), pp.125-135.
- 정혜정 (2013) 피부유형별 세안 방법 및 클렌저 사용법과 부작용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p.12.
- 조가영(2020), 남성들의 피부 미용시술 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6.
- 조현아, 박초희(2022), 남성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 분석 -올인원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28(4), p.664.
- 차타순 (2002) 자기애적 성격성향과 소외감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4(1), p.39.
- 최미영, 이재일 (2016)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자기애 성향과 외모 관련 의복행동의 관계에서 비만 스트레스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40(4), pp.615-630.
- 최미혜, 김경희 (2013) 남성의 미용성형수술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9(1), pp.26-33.
- 최수경 (2014) 남성 토털 패션을 위한 의복이미지, 헤어스타일이미지, 헤어스타일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3), p.635.
- 피차치, 조고미(2022), 취업스트레스의 정서요인과 신체화증상, 미용성형 및 체형관리 행동과의 연계성 광주광역시 중국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23.1 (2022): pp.299-312.
- 하종경 (2009), 외모관리 동기에 따른 의복 및 화장행동.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pp.385-396.

- 한정민, 조민수, 홍세은, 박선웅. (2016).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pp.27-41.
- 허은숙 (2011)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미용성형에 대한 인식 특성.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pp.3-4.
- 허지화 (2013) 남성의 피부지식과 자가 피부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비만미용향장대학원.
- 홍하나 (2018) 지향가치관에 따른 여성 소비자의 외모인식과 외모관리행동. 국내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p.18.
- 홍수린 (2023)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AI 데이터와 신지식재산권.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p.182.
- 형문정 (2022)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p.6-8.
- 황수연 (2014) 남성 색조 화장품의 제품별 사용 실태 및 인식도.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4.
- 황윤정, 조기여, 유태순 (2003) 외모관심도,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따른 미용성형 행동 연구. 한국 패션 비즈니스 학회, 7(4), pp.17-25.
- 황윤정 (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재원 (2021) 나르시시즘을 반영한 이상적 자아 이미지 연구 : 연구자의 도자조형 작품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9.

국외문헌

- Aune, R. K., & Aune, K. S. (1994). The influence of culture, gender, and relational status on appearance management.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5 (2), 258-272.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oopersmith, S. (1967). Parent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self-esteem, In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pp.96-117.
- Freud, S. (1914/1957). On narcissism: An introduction.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14, pp. 67-104). London: Hogarth Press.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Butler, Bodies that Matter*.
- Jun, D., Kwak, S., Ahn, D., Seong, S., & Park, S. (2020). The effects of narcissism, BMI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n the selfie behavior.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2(1), 102-111.
- Jean M. Twenge and W. Keith Campbell(2013), Maylath B ,Bakke A . “The Narcissism Epidemic: Living in the Age of Entitlement, by Jean M. Twenge and W. Keith Campbell” *Journal of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 pp.462-467.
- Joshua B. Grubbs, Julie J. Exline, Jessica McCain, W. Keith Campbell, Jean M. Twenge(2019), Emerging adult reactions to labeling regarding age-group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entitlement

- Julia Shaw(2021), ‘나’ 1인분 추가요: 나르시시즘은 증가하고 있는가?. BBC 사이언스,null(null), pp.76-77.
- Lasch,C.L.(1979), Thecultureofnarcissism.New York:Norton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 (1994). “Attitude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pp.191-202.
- Pulver,S.E.(1970).Narcissism :the term and the concept, Journal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18,319-341.
- Raskin, R. (1980). Narcissism and creativity: Are they related. Psychological Reports.46,55-60.
- Rosenberg,M.(1965), Society and theadolescents elf-image.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Press.
- Hurlok, E. B. (1978), Development Psychology. New Deli: Tata McGraw - Hill PublishingCo.,Ltd.
- S.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1990.
- Kaiser, S. B. (1997). The social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기타 자료

오픈 서베이,2024. 남성 그루밍 트렌드 리포트 2024, 오픈서베이 트렌드 리포트.

경향일보, 2020. “MZ세대는 워라벨 보장, 개인중시 등 이전세대와 달라“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00804094701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검색일: 2024. 03 06)

이투데이, 2022. 코로나 뷰티 주춤해도 남성 그루밍은 계속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08044> (검색일: 2024. 03. 12)

한국 경제, 2015. 성형 받은 10명 중 8명, 성형 전 외모로 불이익 경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1297886i> (검색일: 2024. 04. 06)

동아일보, 2021. “그 얼굴론 취업 못해” 말에 ‘K돌’ 얼굴로 성형한 베트남남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08/105777025/2> (검색일: 2024. 04. 09)

한국일보, 2020. [특파원 24시] 실리콘 벨리, 남성성형 바람 왜? “생존 위한 투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202001121508068195?did=kk> (검색일, 2024. 04. 16.)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97> 외모와 성형에 대한 인식. (검색일, 2024.03.16.)

외모, 피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검색일: 2024 03. 10)

서적 참고

외모지상주의의 역설. 박상훈. pp.88-89

ABSTRACT

The Impact of Narcissism on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Men in Their 20s and 30s

Soo Jin Chang
Cosmetics Major
Dept. of Convergence Beauty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University

The modern generation, increasingly becoming self-absorbed under the rising influence of individualism, is correlated to narcissistic tendencies. Motivated by these tendencies,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and consumption patterns are effected. In this study, we have collected data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m and consumer behavior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demographic included in this study consists of men in their 20s and 30s. We aim to use the observations collected from this data to use as a basis when executing segmented marketing and product development for the beauty market. This will aid in a deeper understanding of a new emerging consumer base.

This study surveyed 535 men in their 20s and 30s nationwide to investigate their appearance care behaviors throug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find out how narcissistic tendencies, classified

into two area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ffect appearance care behaviors.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9.0 program, and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frequency and percentage,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α),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analyzed appearance care behavior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the highest expenditure on appearance care was on clothing (35.7%). 36.8% have had cosmetic procedures, and the most common type of cosmetic procedure was skin laser. The most common basic cosmetic product used was lotion (22.6%), and the most common reason for wearing makeup was to moisturize the skin (52.3%). In terms of whether or not they use makeup, 48.0% have experience, and 29.2% use or have used makeup products, with BB cream and CC cream being the most common. Overall, the most common reason for taking care of their appearance was for self-satisfaction (36.7%).

Second,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narcissistic tendenci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those who are married, employed/professional, and have higher average monthly expenditures on beauty care have higher self-esteem. Narcissism was higher among single individuals, students, and those with higher average monthly appearance grooming expenses.

Third, when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care behavior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emographic factors and each type of appearance care behavior. However, by occup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kin and body shape, hair and clothing for office workers and professionals, and plastic surgery for students. In addition,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appearance care behaviors was higher for those who spent more than 200,000 won. This may be an indirect result of the fact that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re related to occupation, and the intention to gain an advantage among similar competitors in the workplace by managing their appearance may be implied in the group with a job, wh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stic surgery in the student group may reflect the psychology of having a good image for future job hunting.

Fourth, when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by narcissism level, we found that only hair and skin care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high self-esteem group, while all subtypes of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high narcissism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individuals who seek stability may engage in appearance care behaviors that further enhance their natural body, while narcissistic individuals who seek to show off may engage in more aggressive appearance care behaviors that use clothing and plastic surgery in addition to their natural body care.

Fifth, we analyzed the effects of narcissism on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and found that self-esteem and narcissism had significant effects on all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Specifically, self-esteem had a higher relative influence on hair care behaviors, but narcissism had a higher relative influence than self-esteem on skin care behaviors, body shape care behaviors, cosmetic care behaviors, and clothing care behaviors except for hair care behaviors. This suggests that narcissism, which is an other-conscious and exhibitionistic trait, is a stronger behavioral motivator than the internal motivation of self-esteem, which is more subjective and prioritizes self-satisfa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arcissism, a major trait of modern people, has a positive effect on skin, hair, body shape, clothing, and cosmetic care, which have been proposed as subtypes of male grooming behaviors.

Future research on narcissism should develop various measures of narcissistic tendencies that reflect the complex characteristics of modern people, so that the level of narcissism in modern people can be accurately measured and data can be used as a basis for all industries. In addition,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on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behavioral motivations, consumption psychology, and consumption patterns will be conducted to provide indicators of positive self-love and healthier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for modern people, improve awareness of appearanceism, which has emerged as a problematic phenomenon in our society, and lead to healthier appearance grooming behavior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us understand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of men in their 20s and 30s in an increasingly competitive society.

20~30대 남성들의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참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자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에서 “20~30대 남성들의 자기에 성향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설문지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얻고자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연구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설문의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오니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소중한 의견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화장품학전공

지도교수 : 김 주 덕

연구자 : 장 수 진

E-Mail : kancholong@naver.com

I.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의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가 가장 많이 지출하는 외모관리 비용은 무엇입니까?
① 피부 ② 체형 ③ 헤어 ④ 의복 ⑤ 성형 및 시술
2. 귀하는 성형 및 시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3-1번으로) ② 아니오 (4번으로 이동)
- 2-1. 귀하의 성형 및 시술 부위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눈 ② 코 ③ 얼굴 윤곽 ④ 피부 레이저
⑤ 보톡스 및 필러 ⑥ 제모 ⑦ 눈썹 및 헤어 문신
3. 귀하가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스킨 ② 로션 ③ 에센스 ④ 수분/영양 크림
⑤ 울인원 ⑥ 아이크림 ⑦ 마스크팩 ⑧ 자외선 차단제
4. 귀하가 기초화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피부 청결 ② 피부 보습 ③ 안티 에이징 (항노화) ④ 트러블 관리
5. 귀하는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6번으로 이동)
- 5-1. 귀하가 사용 중이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톤업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② BB크림, CC크림
③ 아이브로우 펜슬 ④ 컨실러 (잡티 커버)
⑤ 파운데이션 및 쿠션 ⑥ 립 메이크업
⑦ 헤어 커버 쿠션
6. 귀하가 외모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기만족을 위해
② 자신감을 얻기 위해
③ 약점을 보완하여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
⑤ 이성교제나 결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므로
⑦ 구직이나 사회적 성공을 위해
⑧ 기타 ()

II. 다음은 자기에 성향의 하위분류인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아존중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자기에 성향의 하위분류인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나르시시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받아 마땅한 대접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6	관중이 많은 장소에서 나를 더욱 뽐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상대의 지적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내기나 각종 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 하면 매우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나에게 대한 비난으로 해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외모관리행동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외모관리행동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가끔 왁스, 젤 등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헤어 스타일링을 위해 염색, 퍼머 등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모발/두피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피부과/ 피부관리샵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세안 후 스킨, 로션 외에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호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평소 선크림이나 BB 크림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중요한 날에는 가벼운 Make-up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체형관리를 위해 운동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성형수술은 신체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물(이뇨제, 설사제, 살빼는 약 등)을 복용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회가 되면 성형 수술을 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선호 브랜드의 신제품이 언제 출시되는지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가끔 패션 잡지를 구매해서 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해외 명품(가방, 옷, 신발 등)을 1-2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20~30대 성인남성 대상)
① 20~25세 ② 25~30세 ③ 30~35세 ④ 35~39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대학생 이상은 재학생 포함)
① 고등학교 졸업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3. 귀하의 결혼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회사원 ② 자영업 ③ 전문직 ④ 학생
⑤ 기타(무직)
5. 귀하의 월 평균 외모관리비용은 얼마입니까?
※ 외모 관리 내용: 피부, 의복, 헤어, 체형, 성형 및 시술 등
① 5만원 미만 ② 5~10만원 미만 ③ 10~20만원 미만
④ 20~30만원 미만 ⑤ 30만 원 이상